

## 을미의병기 徐相烈과 嶺南義陣 사이의 연대와 갈등\*

- 태봉 전투 이후를 중심으로 -

구 완 회\*\*

- I. 머리말
- II. 연대 복원을 위한 노력과 좌절
- III. 소토진·영남의진의 갈등 요소들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서상렬은 을미의병기에 활동한 호좌의진[제천의병]의 간부로서, 영남 쪽의 의병사에 큰 자취를 남긴 인물이다. 그는 소모부대[召討陣]를 이끌고 남하하여 예천에서 영남 북부 7 고을의 의병부대와 회맹하고, 그 지도자가 되어 태봉 전투를 주도했고, 적극적인 투쟁 노선을 이끌었다. 태봉 전투의 실패 뒤에도 전투적 투쟁 노선을 계속 밀고 나갔다.

의병 해산을 위해 내려온 관찰사는 영남의 여론 주도층과 서상렬을 이간시켰다. 영남의 의병부대는 명문가의 자손들이 주도했고, 문중의 의

---

\* 이 논문은 2020년도 세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따라 작성한 것임.

\*\* 세명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 kuwanhoe@gmail.com

견을 반영하는 향론에 따라 의병을 조직하고 운영했다. 결국, 안동권 의병을 주도하던 안동·예안의병의 지도부가 동요했다. 해산을 요구하는 관찰사 쪽의 회유, 京軍의 군사적 압박과 수탈은 영남 쪽 의진 지도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을 강요했다.

서상렬은 여러 차례 연대를 위한 義陣會議를 추진하고 참여했다. 예천 회맹 때 내세웠던 명분과 소토진의 강력한 무력이 그가 지닌 힘이였다. 그러나 결국 연대를 회복하는 데 실패했다. 영남의 의진들은 투쟁의 방향을 정할 때도 향론을 중시했고, 군수 비용도 주요 문중들이 분담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 이는 비타협적인 투쟁 방식, 의병 활동에 국가의 재물을 당연히 쓸 수 있다는 호좌의진의 방식과 크게 달랐다. 아울러 소토진과 연대하거나 결합한 호파 계열의 인물들, 비주류 쪽 인물들, 향리 출신 등은 영남 주류 세력의 경계감을 불러일으켰고, 屏虎是非와 같은 영남 내부의 갈등은 연대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서상렬의 실패는 영남의 의병이 급격히 쇠퇴하는 배경이 되었다.

◆ 주제어

의병, 호좌의진, 소토진, 서상렬, 이남규, 예안의병, 안동의병

## I. 머리말

단발령에 반대하면서 일어선 을미의병에 관한 글은 많다. 그 결과 의병의 성격에 관하여 대략의 결론을 낼 수 있게 되었다. 군대 해산 이후에 전개된 후기 의병에 비하여 ‘斥邪義兵’으로 범주화하게 된 것은 그 덕택이다. ‘시위의병’의 측면도 지적되었다.<sup>1)</sup>

그러나 연구 성과가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인물·지역별 검토에 그친 경우가 많다. 유생들이 주도했던 만큼 그들이 내세웠던 이념적 지향이 분석되었지만, 구체적인 투쟁 현장에서의 실상을 전하는 데 소홀했다.

물론 이는 일차적으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상 인물이나 지역을 돋보이려는 연구자의 생각 때문이기도 하다.<sup>2)</sup> 여기서 의병 활동의 실제 상황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를 찾을 수 있다. 다행히도 일기 자료가 많이 발굴되고, 그것이 디지털 자료로 축적되면서 의병 활동의 현장을 전보다 더 잘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sup>3)</sup>

이 글은 충청도 제천에서 일어선 湖左義陣[제천의병]과 영남 쪽 의진의 연대에 관한 글이다.<sup>4)</sup> 구체적으로는 태봉 전투 후에 호좌의진의 지도자 徐相烈(1854~96)과 안동의병을 비롯한 영남의 여러 의진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살폈다. 지역적 기반이 다른 이들 의진이 어떻게 돕고 갈등했는지, 그 까닭이 무엇인지가 관심사다.

이 연구는 호좌의진과 안동을 비롯한 영남의 의진에 관한 앞선 연구에 힘입었다. 먼저 영남 쪽 의진에 관한 검토로는 이 지역의 의병 활동

1) 조동길, 『한국독립운동사총설』, 역사공간, 2010, 51쪽.

2) 김희곤은 이러한 ‘崇祖學’의 경향을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김희곤, 『경북유림과 독립운동』, 경인문화사, 125~126쪽.

3) 한국국학진흥원의, ‘선인의 일상생활, 일기’, 장서각의 ‘장서각 기록유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고문서자료관’ DB등이 참고된다. 아울러 근년에 출간된 『국역경북지역의병자료』(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2012)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4) 이 글에서 ‘영남’은 대부분 영남 북부 지역을 가리키는 느슨한 개념으로 사용했으며, ‘안동권’이라는 용어와 혼용했다.

을 선도해 나간 안동의병과 예안의병[선성의병]에 관한 연구가 있다.<sup>5)</sup> 공조 부분에 관하여는 醴泉會盟과 태봉 전투에 관한 연구가 있고,<sup>6)</sup> 안동의병 내부의 갈등을 살핀 연구도 있다.<sup>7)</sup>

그러나 영남의 의병에 관한 통설을 이루는 대부분의 연구는 나온 지 10~20년도 넘는 것이다. 태봉 전투 이후 서상렬이 이끄는 호좌의진의 召討陣과 영남 쪽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 나온 적이 없다. 서상렬이 利川의병과 연대를 모색했던 점을 주목한 일은 있으나 안동 義陣會議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함께했던 부분을 놓쳤고, 관찰사 李南珪를 둘러싼 논란에 屏虎是非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계되는지에 관한 검토는 없었다.<sup>8)</sup> 아울러 서상렬과 영남 의진의 연대가 잘 이뤄지지 않았던 원인이 무엇인지도 궁금한 점이다.

호좌의진에 관한 연구가 쌓이고, 영남 쪽과 연대할 때 중심에 섰던 서상렬에 관한 검토가 이뤄지면서 이제 양쪽 관계를 더 치밀하게 그릴 수 있게 되었다.<sup>9)</sup> 필자는 태봉 전투에 관한 글에서 서상렬의 소토진이 영남으로 내려오게 된 배경을 검토했다. 아울러, 영남에서는 호좌의진을 처음에 관동진, 또는 영월의병으로 이해했다는 점, 예천 회맹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호좌의진과 소통하던 川城의병<sup>10)</sup>·榮川(지금의 영주. 이하

5) 김상기, 「1895~1896년 안동의병의 사상적 연원과 항일투쟁」, 『사학지』31, 1998. 김희곤, 「서산 김홍락(1827~1899)의 의병항쟁」, 『한국근현대사연구』15, 2000. 김희곤, 「예안 선성의병과 온혜마을 인물의 역할」, 『안동사학』11, 안동대, 2007. 이동신, 「예안지역의 선성의병(1895~1896) 연구」, 『안동사학』8, 안동대, 2003. 권영배, 『안동 지역 의병장 열전』, 지식산업사, 2012.

안동대 안동문화연구소, 『경북독립운동사 I』, 경상북도, 2012.

6) 권대웅①, 「을미의병기 경북 북부지역의 예천회맹」, 『민족문화논총』14, 1993; 김상기, 「1895~1896년 안동의병의 사상적 연원과 항일투쟁」, 『사학지』31, 1998.

7) 권대웅②, 「을미의병기 안동유림의 의병투쟁」, 『대동문화연구』36, 2000. 이 글은 안동 문화권 내의 의병 활동을 병호시비와 관련하여 검토했다.

8) 권대웅③, 「을미의병기 호좌의진의 영남지방 활동」, 『지역문화연구』7, 2008.

9) 구완희①, 『한말의 제천의병』, 집문당, 1997; 구완희②, 「한말의 의병장 경암 서상렬의 생애」, 『지역문화연구』12, 2013; 구완희③, 「을미의병기 호좌의진과 영남 의진의 연대와 태봉 전투」, 『국학연구』24, 2014.

10) 권제녕의 『義中日記』에 나오는 ‘천성의병’은 삼계서원이 있던 천성(내성)을 중심으로

같은)의병이 중요한 구실을 한 것을 밝혔고, 특히 천성의병의 주요 인물이 안동의병의 핵심으로 들어가면서 연대가 촉진되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아울러 호좌의진의 소토진이 내려오면서 영남의 인사들도 거기에 합류하게 된 것, 태봉 전투의 현장을 5만분1 지형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혔다.<sup>11)</sup>

이 글에서는 태봉 전투 이후의 연대 양상을 서상렬을 중심으로 추적했다. 이를 위해 일기 자료와 몇몇 고문서를 활용했다. 특히 기왕에 이용되어 온 金鼎燮의 『일록』(『국역 경북지역의병자료』, 2012 수록) 외, 그것의 원본이며 국학진흥원이 소장한 『(영감택)일록』6, 『(영감택)일록』7을 자세히 검토했다.<sup>12)</sup> 일기에 썼다가 지워버린 부분, 『일록』으로 옮기는 과정에 생략한 부분도 다시 살폈다. 영남 사람으로 소토진에서 활동한 張復圭의 『四而齋文集』이나<sup>13)</sup> 선유사로 활동한 鄭宜默의 「疏草」도 새로 활용하는 자료다. 이 연구로써 서상렬에 관한 이해를 넘어, 당시 추진된 연대의 과정, 安東圈의 의병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어떻게 내리막길로 접어드는지도 두루 살피고자 한다.

## II. 연대 복원을 위한 노력과 좌절

### 1. 소토진·예천의병의 투쟁 연대

안동권 의병의 중심에 안동의병과 예천의병이 있었다. 안동은 조선의 지방군 편제에서 영남 북부권의 여러 고을 군병을 거느리는 대도호부가

---

태동한 의병을 말한다. 1895년 음력 12월 15일의 패전으로 좌초된 안동의병이 재기하는 과정에서 호좌의진과 소통했고, 김하림(도도총)·권재호(중군) 등이 이끌었다. 이들이 西後(경광서원) 쪽의 의병론자들과 함께 안동의병을 재건하는 데 기여했다.

11) 구완회③.

12) 이 글에서는 이들 자료를 『일록』·『일록(6)』·『일록(7)』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3) 자료를 찾아준 장승구 교수, 김태환 선생께 감사 드린다.

있던 큰 고을이었고, 의병이 일어나던 때는 17개 고을을 관할하는 안동부 관찰사가 주재하는 고을이었기에, 이웃 고을의 의진들도 안동의병을 主陣으로 여겼다.<sup>14)</sup> 또한, 영남에서는 퇴계학의 계승자들을 중심으로 공론을 모아왔던 전통이 있었으므로,<sup>15)</sup> 안동·예안의병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다. 안동은 李滉의 嫡傳 제자들이 자리 잡은 곳이었고, 예안은 작은 고을이었으나 이황의 자손들이 자리 잡은 곳이었기 때문이다. 의병 봉기를 주장하는 통문을 낼 때도 안동·예안의 명문가 자손들이 앞장섰고, 그들이 의진의 중요 직책을 나눠 맡았다. 이황의 혈통을 이은 李晩燾·李中麟 등은 직접 예안의병의 대장으로 나섰다.<sup>16)</sup> 안동 쪽으로부터 온 통문을 받아본 柳麟錫도 이황의 후손이 앞장선 것에 감동하고, 이제 영남 72 고을이 모두 일어설 것이라고 기대했다.<sup>17)</sup> 처음에 호좌의진과 연대하는 데 앞장선 것도 이들이다.

그러나 가문적 배경에서 오는 의진의 대외적인 명성과 의병 항쟁의 성과는 꼭 일치하지 않았다. 실제로 그때 안동의병을 이끌었던 최고 지도자 金道和는 柳致明의 문인으로 명망 높은 학자였지만 일흔을 넘긴 고령이었고, 전투 현장에 나설 수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태봉 전투를 거치면서 안동의병의 지도력에 문제가 불거졌다. 패전의 중요한 원인이 안동의병에 있다는 평가 때문이었다.

물론 기록자마다 태봉 전투의 양상을 조금씩 달리 기록했다. 그러나 태봉 전투에 나섰던 안동의병이 일본군과 접전하던 다른 의진의 뒤쪽에서 사격하다가 먼저 물러섰던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sup>18)</sup> 안동의병이 뒤에서 쏜 총알이 일본군과 충격전을 벌이는 의병들에게 떨어질 정도였다.

14) 『琴錫柱日記』 병신 2월 24일; 3월 24일.

15) 김성운, 「안동 남인의 정치적 일상과 지역정치의 동향」, 『영남학』15, 2009, 80~81쪽.

16) 이만도는 이황의 손자 詠道の 9세손, 이중린은 맏손자 安道の 10세손이다.

17) 유인석, 「급한 편지」, 『湖西義兵事蹟』, 1994, 33쪽.

18) 태봉 전투에 관한 김정섭·이공연·김도현·금석주 등의 기록이 있다. 대개 안동의병이 뒤쪽에서 사격하다가 먼저 퇴각한 것을 기록했다. 금석주의 기록은 안동의병이 왼쪽 산위에 올라가 천보총을 쏘았다면서 활약상을 전하지만, ‘왼쪽 산위’는 전선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이었음이 확인된다. 구완희③, 336쪽.

선봉장부터 전선을 이탈했고, 애써 모은 군자금도 절반 가까이 버려두고 허둥지둥 후퇴했다.<sup>19)</sup> 전투에 나간 250명의 의병 중 겨우 60여 명이 돌아왔을 만큼 결과는 참담했다.<sup>20)</sup> 결국 중군장 權載晃가 이끌었던 안동의병은 힘을 합쳐 공세에 나섰던 연합 의진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다.<sup>21)</sup>

이 때문에 안동의병은 연대했던 의진으로부터 잘못을 추궁당하게 되었다. 예천의병 쪽에서 책임을 따졌고, 예안의병 쪽에서는 안동의병에 사람을 보내 중군을 배라고 다그쳤다. 회맹을 주도했던 소토진의 서상렬도 선봉장에게 칼을 쥐어주고 안동 중군을 뒤쫓게 했다. 안동의병의 활동을 도왔던 김정섭의 기록에도 ‘길가의 원성은 모두 안동을 허물했고, 분노가 넘쳤다.’라고 전할 정도였다. 안동의병에서는 권재호를 잡아 가두기까지 했다.<sup>22)</sup>

태봉 전투로 의병의 사기가 크게 떨어졌을 때, 투쟁 노선을 주장한 것은 소토진의 서상렬이었다. 그는 태봉 전투 때 새재 쪽을 방어한 예천의병과 함께 赤城(문경 동로면 적성리) 부근에 주둔하면서 전투를 계속하자고 주장했다.<sup>23)</sup> 예천 회맹을 주도하면서 ‘역적의 편이 되지 말자’, ‘적을 바라보기만 하고 나아가 치지 않는 짓을 하지 말자’고 맹세했던 철저한 의병론자다웠다.<sup>24)</sup> 그 소식을 들은 李兢淵·김정섭도 소토진이야말로 진정한 군대요, 다른 의진에 비길 바가 아니라며 칭송했다.<sup>25)</sup>

그렇다면 예천의병이 소토진과 연대하면서 전투의병의 모습

19) 김정섭, 『일록(6)』 병신 2월 16일.

20) 『일록(6)』 병신 2월 17일.

21) 『赤猿日記』 병신 2월 19일. 박주대는 ‘안동의병 중군 권재호가 병사들의 인심을 잃고 깊숙이 틀어박혀 나가지 않다가 먼저 도망쳤던 것’이 패전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小宅日記』 병신 2월 16일. 『소택일기』는 예천 맞질의 함양 박씨가 일기로서 뒤에 『渚上日月』로 명명되었다. 논문에 인용한 것은 『소택일기』 8책의 내용들이다.

22) 『일록(6)』 병신 2월 17·18일. 이때 중군 권재호는 백방으로 구명하여 ‘군령장’을 쓰고서야 지휘부에 복귀할 수 있었다. 『일록(6)』 병신 2월 19일.

23) 『소택일기』 병신 2월 17일.

24) 박정수, 『下沙安公乙未倡義事實』 병신 2월 13일.

25) 이공연, 『乙未義兵日記』 병신 2월 18일; 『일록(6)』 병신 2월 18일.

을 보여주었던 것은 왜일까? 처음에 예천의병은 의병론자들로부터 의심 어린 평가를 받았다. ‘개화당’ 출신이며, 안동으로 출병하는 京軍을 접대한 예천군수가 의진을 설립하는 데 간여했기에 ‘疑兵’, 즉 의심스러운 의병으로 여겨졌다. 안동의병이 처음 봉기한 직후에 흩어지게 된 것은 결국 京軍을 대접해 보낸 예천군수의 탓이라는 것이다.<sup>26)</sup> 그러나 회맹하는 자리에서 예천군수를 끌어내어 처단하면서 그 혐의도 씻었고, 예천회맹의 당당한 주역이 될 수 있었다.<sup>27)</sup> 따라서 예천의병의 지도부는 순정한 투쟁의지를 보이고자 하는 심리적 동기를 지니고 있었다.

또 주목할 만한 점은 예천의병이 강한 군사적 역량을 지녔다는 점이다. 예천에는 일찍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할 때 양성한 포군이 있었다. 의병을 일으킬 때 그 수가 4백~5백이었다고 하며, 어떤 기록에는 총을 든 자가 천여 명, 창을 든 자가 사오백 명이라고도 한다.<sup>28)</sup> 의진의 대장은 朴周庠이었으며, 포군을 이끌고 농민군 진압에 나섰던 張文健이 副將으로 전투의 현장에 나섰다.<sup>29)</sup> 이는 대부분의 의진이 포군과 무기가 부족하고, 지도부가 유생들로 이뤄졌던 것에 비하여 큰 강점이었다.

이와 아울러 예천의병이 호좌의진과 이웃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웃한 문경에서 의병을 일으켜 안동관찰사 金奭中을 처단하며 명성을 올렸던 李康季은 그때 호좌의진의 유격장으로서 조령 일대를 공격하고 있었다. 소토진과 예천의병은 실제로 문경 쪽에서 전투하면서 일정한 전과도 올렸다.<sup>30)</sup> 이 무렵 예천의병이 문경의 평천에 주둔했다는 기록이 호좌의진의 자료에 나오는 것을 보면, 서로 공조하고 있었던 듯하다.<sup>31)</sup>

26) 『일록』 병신 1월 20일; 『을미의병일기』 병신 12월 21일.

27) 『일록(6)』 병신 2월 9일. 종래의 연구에서는 대개 예천이 회맹의 자리에서 배제되었다고 이해한다.

28) 『일록』 병신 1월 20일; 『소택일기』 병신 1월 17일.

29) 『일록』·『소택일기』 속의 장문건은 『倡義事實記』에 나오는 張文根과 동일인이며(박정수 외, 『창의사실기』 병신, 駐次東院村條), 동학 농민군을 진압하면서 명성을 얻었던 인물이다. 『소택일기』 정유 3월 30일. 김병하의 『不自棄文』에 나오는 張錫圭(권대웅①, 58쪽에서 재인용)와 같은 사람이며, ‘문건’은 장석규의 字인 듯하다.

30) 『을미의병일기』 병신 2월 19일. 전투 장소를 알 수 없으나 승전 후 예천의 箕坪(용궁면 원오리·덕계리 부근의 별판)에서 두 의진이 집결했다고 한다.



태봉 전투 후 일본군이 예천읍내에 들어와 의병 지도부 인물들의 집에 불을 지른 것은 예천의병의 활동에 대한 보복이었다.<sup>32)</sup> 실제로 태봉 전투 이후 예천의병은 두 달 가까이 소토진과 의병 활동을 거의 함께했다.

## 2. 이남규의 부임과 분열 공작

조정에서는 문경의병에 의해 죽임을 당한 안동관찰사 김석중의 후임으로 이남규를 발탁했다.<sup>33)</sup> 이는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 북부 지역의 의병론자들에게 새로운 논란거리가 되었다. 이남규는 이황·李瀼·許傳의 학통을 이은 남인 계열의 인물이었고,<sup>34)</sup> 4년 전에는 국왕을 대신하여 柳成龍을 위한 제문을 지은 일도 있었다.<sup>35)</sup> 또한 동학·서학을 배척하고자 주장하고, ‘갑오왜변’과 ‘을미사변’ 이후에 ‘왜적’을 토벌하여 원수를 갚아야 한다고 상소했던 인물이기도 했다.<sup>36)</sup> 따라서 척사의 논리를 중시하였던 영남 남인, 의병론자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면이 컸다. 임명만 뜻도 그랬다.<sup>37)</sup>

관찰사 이남규의 첫째 임무는 의병 해산이었다. 그는 우선 상주에 머물면서 안동에 부임할 수 있는지를 모색했다. 군대를 끌어들여 의병을 탄압한 김석중을 배척했던 의병론자들은 이남규를 받아들일 것인가를 고민했다.<sup>38)</sup> 물론 서상렬은 ‘의병 해산은 국왕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

31) 『하사안공을미창의사실』 병신 2월 18일; 『倡義事實記』 分兵守靈山谷條.

32) 『일록(6)』 병신 2월 19일.

33) 『承政院日記』 고종 33년 1월 21일.

34) 권오영, 「이남규(1855~1907)의 학맥과 유학사상」, 『조선시대사학보』44, 2008, 14 6~151쪽.

35) 이남규, 「文忠公柳成龍致祭文」, 『修堂集』 권8, 제문.

36) 이남규, 「請東西邪學疏」·「論匪擾及倭兵入都疏」·「請絕倭疏」·「請復王后位號討賊復讐疏」, 『수당집』 권2, 소.

37) 『일록』 병신 2월 18일; 『일록(6)』 병신 2월 18일.

38) 안동의병이 일어나자 김석중은 낙동으로 도망하여 일본군을 요청했고, 결국 친위병 1개 중대가 출동하여 의병을 제압했다. 『주한일본공사관기록』 「단발령 반대 민중봉기 각지 상황보고」(1896.1.22); 「안동의 단발령 반대 폭도 진압보고」(1896.1.31).

고 관찰사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다. 그것은 호좌의진의 기본 노선이기도 했다.<sup>39)</sup> 그때 상황을 이남규는 이렇게 보고했다.

尙州 경내에 이르니, 서상렬이라는 자가 스스로 ‘湖左召募討賊大將’이라면서 3,000여 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예천군에 웅거하였고, 전 관찰사와 군수 3명이 모두 그에게 살해당하였습니다. 신이 앞으로 나아가 안동의 경계에 이르렀더니, 서상렬 등이 신의 직책을 보고 ‘이것은 박영효가 고친 제도이고, 김석중이 새로 만든 법이며, 또 이번의 임명은 폐하가 뽑아 보낸 것이 아니고 명령은 폐하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아전과 백성들을 위협하여 앞으로는 신의 수레를 막고 뒤로는 무리를 동원하여 돌아갈 길을 끊었습니다.<sup>40)</sup>

한편 이남규는 안동에서 의병을 일으킨 이들을 다독이는 榜文을 발표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의병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소토진과 영남의 의병을 떼어놓는 것이었다. 이남규는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것, 단발을 강제한 것과 제도를 개편한 것을 개탄하면서 의병의 명분이 옳다고 인정했다. 더욱이 鄒魯의 고향에서 의병이 일어난 것은 마땅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의병 활동을 계속할 이유는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아관파천 이후 ‘亂臣’의 무리가 제거되었고, 단발을 정지하고 의관을 회복하게 하는 등 옛 제도의 복구가 가능하게 된 것을 영남 의병들의 덕택이라고 인정하지만, 해산 명령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주장했다.<sup>41)</sup>

이남규는 특히 안동의 鄉論에 균열을 내려고 했다. 이를 위하여 그는 명문의 후예들로 이뤄진 영남 여러 고을의 의진 지도자들을 접촉했다. 당연히 안동·예안의병의 지도자들이 첫 번째 목표가 되었다.

2월 18일(3.31)쯤, 이남규가 하회 마을을 방문했다.<sup>42)</sup> 앞서 보았듯이

39) 구완희①, 169~174쪽.

40) ‘至尙州境 有徐相烈者 自稱湖左召募討賊大將 率其黨三千餘 據醴泉郡 舊觀察使及郡守三人竝被殺 臣前進至安東界 相烈等謂臣所帶 是泳孝改制 賣中創經 且今差除 非由聖簡 諭勅 非由聖意 齊盟吏民 前拒使車 調發黨類 後截歸路’(『고종실록』 33년 4월 28일).

41) 이남규, 「觀察使榜諭文」, 『국역 경북지역의병자료』, 288~291쪽.

42) 『일록(6)』 병신 2월 18일. 앞으로 본문의 날짜 표시는 음력을 기준으로 하고, 양력을

그는 유성룡을 위한 제문을 작성했던 인연이 있었다. 유성룡이 이황의 학문을 이은 嫡統이라고 명시한 그의 글은 오랫동안 병호시비를 겪어 온 유씨 문중의 호감을 얻었을 것이다.<sup>43)</sup> 이런 점에서 그가 屏派의 강력한 기반이 있었던 상주를 거치고,<sup>44)</sup> 하회에서 열흘 남짓 머물렀던 이 유를 알 수 있다. 안동권의 여론에 변화를 주기 위한 지렛대로 안동의병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는 유씨 문중을 움직이려는 것이었다. 하회의 ‘북촌덕’에 전하는 이남규의 曉諭文은 서상렬에 대한 공격으로 가득하다. 예안 쪽에도 전해 달라면서 시작한 효유문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 임금에 대한 신하 …의 태도는 명분이 지극히 중요합니다. 의리가 지극히 정밀하니 조금만 빠끗해도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천지가 뒤바뀐 근본에는 못된 도깨비 같은 명분과 의리를 거짓 빙자하여 가만히 딴 뜻을 품는 자가 있습니다. … 본 관찰사가 남쪽으로 내려온 지 달포가 지나 의병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것을 확실히 알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듣건대 서상렬이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기를, 대군주 폐하라는 칭호는 개화에 서 비롯한 것이니 이 무슨 호칭이며, … 건양 원년이라고 하는 것은 개화한 데서 나온 것이니 이 무슨 연호인가 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러시아 공사관에 더부살이하는 중인데 무슨 왕명이냐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 진실로 불경스럽습니다.

… 얼마 전에는 안동부의 사민에게 격문을 보내 ‘천하의 일 중에 正名이 제일’이라고 하였습니다. … 그 말은 비록 관찰사를 가리켜 말한 것이지만, … 관찰사의 직명은 한 지역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 임금의 애통한 뜻을 담은 밑조는 누가 위조한 것입니까? 소모장이라 하는데 누가 임명한 것입니까? 수령을 죽이고 허깨비로 만드는 자 누구이며, 수령의 명을 거역하고 미친 짓을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리하여 열일곱 고을이 죽어나게 하고, 장정들이 들판에서 고생하고 노약자가 구렁에 빠져 죽게 하니 누구 탓입니까? …

지금 할 일은 여러 고을이 모여 약속을 정하고 의병이 서상렬의 죄를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공을 세워 지난 허물을 보상한 후에야 진짜와 가짜, 順逆이

덧붙인다.

43) ‘도산에서 가르침을 받은 이들 중에/ 온갖 재능을 가진 이들이 가득했지만/ 누가 적통을 이었는고?/ 역시 문충공 뿐입니다(陶山誘掖 群飲各充 疇嫡厥統 亦維文忠).’ 이남규, 「文忠公柳成龍致祭文(應製)」, 『수당집』 권8, 제문.

44) 권대웅②, 281쪽.

드러날 것입니다. 혹시라도 머뭇거리고 날을 끌다가 왕의 군대가 한번 내려오면 玉石이 함께 탈 것이니 진정한 의병마저 변명할 수 없게 될까 걱정입니다.<sup>45)</sup>

이처럼 이남규는 서상렬이 국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상렬은 ‘천하의 일은 정명을 우선으로 한다.’라는 말을 함부로 잘못 쓰고 있으며, 멋대로 소모장이라 하고 수령을 죽이면서 관령을 거부함으로써 영남의 불행이 빚어졌으니 이는 반역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 고을의 의진이 모여 그 죄를 꾸짖어, 왕의 군대가 내려오기 전에 ‘영남의 의병이 진정한 의병이며 서상렬은 가짜 의병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위협했다.

안동의병 지도부도 이남규의 주장을 두고 고민했다. 실제로 의병에 우호적이었던 안동의 김정섭도 ‘개화 벼슬’도 아닌 관찰사의 부임을 막는 것을 납득하지 못했다.<sup>46)</sup> 이런 논란이 있을 때 영남에서 늘 해왔던 것은 향론을 모으는 것이었다. 여러 문중, 여러 의진의 뜻을 모아야 했다.

결정을 압박하려는 듯, 상주로 도망갔던 순검들이 열 명 남짓한 태봉병참의 일본군과 함께 풍산 쪽으로 들어왔다. 아침밥을 먹던 안동의병은 일본군의 공격에 제대로 맞서 보지도 못하고 무너졌고, 저물녘에는 安奇(안기동)에서 일어난 불길이 읍내를 덮쳤다. 이로써 민가 1천여 호가 일본군에 의해 거의 잿더미가 되었고, 일본군은 약탈한 재물을 챙겨 상주 낙동 쪽으로 돌아갔다. 이때 안동의병에 몸 담았다가 일본군의 짐을 운

45) ‘夫臣之於君 … 名分至重 義理至精 毫差千謬 天壤易處 坎一有奸鬼妖域 假借名義 而陰懷異圖者 … 李使南來劣有月日 義旅之有真有假 固已默察而辨之矣 聞徐相烈對人倡言輒散曰 大君主陛下肇自開化是何位號。… 建陽元年建自開化是何年號 甚至曰俄館寄寓之中 有何王令云 … 固涉不敬 … 近見其移檄于本府土民者 則有曰 天下之事正名為先 … 其言雖似指本使職名而發 … 且觀察使治一府事而已 … 哀痛僞詔誰所造也 召募職任 誰所命也 戕害牧守作僞者誰 抗拒使命為僞者誰 而使此十七州之衆 丁壯暴露於原塹 老弱轉死於溝壑 繫又誰之故也 … 為今之計 莫若約會列邑 義旅聲討 徐相烈之罪 將新功而補舊愆然後真假別矣 順逆分矣 如或遲疑不決 遷延時日 王師一下 玉石俱焚 吾恐真義旅 亦無以自明也’(한국국학원 소장, 『풍산유씨하회화경당(북촌택)문서』11605).

46) 『적원일기』 병신 2월 19일; 『일록(6)』 병신 2월 15일.

반해 주는 자도 있었다고 하니 기강이 무너졌던 것을 알 수 있다. 2월 20일(4.2)의 일이었다.<sup>47)</sup>

안동의병 도총 柳蘭榮 등이 황급히 의진을 추슬렀고,<sup>48)</sup> 대장 김도화는 외진 곳으로 피해 열흘 이상 여러 곳을 떠돌았다.<sup>49)</sup> 이 무렵, 남쪽에 서는 대구에서 올라오는 경군이 의성을 불 지르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이처럼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봉화의병은 안동을 도울 준비를 하면서도, 새로 부임하는 군수를 맞아들이도록 했다. 의진과 관이 공존하는 일이 생긴 것이다. 물론 군수를 의진의 ‘도총관’으로 삼는 선에서 모양을 갖추었다.<sup>50)</sup>

### 3. 연대 복구를 의진의회

이 무렵, 예천의 鳴鳳(효자면 명봉리)에 주둔 중이던 서상렬의 소토진은 병력을 증강하고 있었다.<sup>51)</sup> 의병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사창미를 쓰도록 하는가 하면, 요호들을 통해 군수물자를 끌어들었다. 예천의 芙浦(은풍면 부초리)에서 병사들에게 군복을 만들어 입혔고,<sup>52)</sup> 멀리 嶺西 지역까지 소모부대를 내보내 포군을 끌어들었다.<sup>53)</sup> 엄정한 군기를 유지하기 위해 영천에서 소토진에 합류한 종사 宋治翼을 처형하는 일까지 있었다. 송치익은 소문난 효자 집안의 인물이었기에 충격이 컸다. 이로써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잔인한 일이라는 비판도 일었다.<sup>54)</sup>

47) 『을미의병일기』 병신 2월 19·20·21일; 『일록(6)』 병신 2월 20·21·24일; 『금석주일기』 병신 2월 22·24일; 『일본공사관기록』 문서12, 「일군의 안동민가 방화사건에 대한 해명」(1896.5.15).

48) 『일록(6)』 병신 2월 22일. 유난영은 유성룡의 11세손으로 승지 柳致陸의 손자다.

49) 『적원일기』 병신 2월 21일. 처음에 개목나루를 넘어 호계(도곡리)·도연(길안면 웅계리)·용담사(길안면 금곡리)·금소·송천(송천동) 등을 떠돌다가 3월 초에 금소로 돌아와 그곳에서 3월 25일까지 보름 정도 머물렀다.

50) 『일록(6)』 병신 2월 22일; 『금석주일기』 병신 2월 21·23·24일.

51) 『소택일기』 병신 2월 25일.

52) 『소택일기』 병신 2월 25·27·28·30일.

53) 『하사안공을미창의사실』 병신 3월 1·5·8일.

예천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운 서상렬은 영남의 의진들을 향하여 예천에서 합치자고 제안했다.<sup>54)</sup> 만나자고 지목한 桃李原(예천읍 청북리의 도리촌)은 교통의 길목인데다 전에 회맹하던 곳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회맹의 정신을 복구하자는 몸짓이기도 했다. 그러나 별다른 반향은 없었던 듯하다. 봉화의병장 琴錫柱는 위기에 빠진 안동의병을 돕는 것이 더 급하다면서, 예안·풍기·순흥의병 쪽에 통지하여 함께하자고 제안했다.<sup>55)</sup> 패전 후, 안동의 동쪽을 전전하던 김도화 쪽에서도 하루에 두 번이나 私通을 전하면서 어디선가 만나 합치자는 의견을 전했다.<sup>56)</sup>

이때 안동의병 내부에서는 관찰사를 맞아들이자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김도화가 유생 2명을 보내어 이를 청했다고 한다.<sup>57)</sup> 그러나 다른 의진에서 동의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안동의병 쪽에서 소토진이 주둔하는 명봉을 찾은 것은 그 즈음이었다.<sup>58)</sup> 관찰사 문제에 관한 안동의병의 입장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연대 투쟁을 제안하는 서상렬에 대한 안동의병의 대응이기도 했다.

그러나 안동의병 내부의 의견조차 엇갈리는 상태였다. 병호시비의 양쪽 근거지인 河回(풍천면 하회리)·金溪(서후면 금계리) 쪽 사람들이 따로 왔고, 전혀 다른 의견을 말했다. 이때 하회 쪽에서 관찰사를 받아들이자는 주장을 한 듯, 서상렬은 분노하여 하회에서 온 사람을 죽이려고 하기까지 했다.<sup>59)</sup> 이는 병호시비의 양쪽 당사자들이 관찰사 문제와 관련하여 부딪치고 있었던 것을 말한다. 다른 의진들도 관찰사를 받아들이자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sup>60)</sup>

54) 『소택일기』 병신 3월 2일; 『일록(6)』 병신 3월 2일.

55) 『금석주일기』 병신 2월 22일. 이때 서상렬의 제안을 금석주는 ‘襄陽[예천] 모임’이라 하였다. 이곳은 원(院)이 있었던 곳이다. 『금석주일기』 병신 3월 14일.

56) 『금석주일기』 병신 2월 24일.

57) 『금석주일기』 병신 2월 25일.

58) 『일록(6)』, 병신 2월 28·29일.

59) 『소택일기』 병신 2월 23일.

60) 『소택일기』 병신 2월 23일.

61) 『일록(6)』 병신 3월 3일.

하회에 머물면서 사태를 주시하던 관찰사가 용궁 쪽으로 떠났다. 일본군이 머무는 상주로 가는 길이었다.<sup>62)</sup> 전에 김석중이 그랬듯이 군대를 이끌고 올 것이라는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 무렵 예안의병에 서는 公兄에게 관찰사를 받아들이라고 조치했다.<sup>63)</sup> 당연히 논란이 일었을 것이다. 예안의병의 중군장이던 김도현은 안동에서 의병이 패하고 불길에 잠기던 무렵부터 의진의 분위기가 두 갈래로 나뉘었다고 하였는데,<sup>64)</sup> 관찰사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었을 것이다.

이때 안동의병 쪽에서 2월 30일(4.12)에 안동의 松川(송천동)에서 모이자고 제안했다. 이 의진회의는 ‘道會’라고까지 일컬어졌는데, 함께 모여 관찰사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었다.<sup>65)</sup> 안동의병의 도총·중군 등 주요 지휘관이 안동으로 돌아왔고, 여러 고을에서 의진을 대표하는 유생들이 모여들었으니 일곱 고을 의진의 모임이 되었다. 서상렬도 안동으로 나아갔다.<sup>66)</sup>

당시 안동이 관찰사를 거부한 것은 일본군의 방화에 대한 분노, 서상렬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한다.<sup>67)</sup> 예안의병과 안동의병 내부 병과 쪽의 타협론이 논란이 되었다. 강경투쟁론자인 서상렬은 매섭게 따졌지만,<sup>68)</sup> 결국 송천 회의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의견이 갈라졌는데, 다수는 관찰사를 받아들여자는 입장이었다.<sup>69)</sup> 용궁 쪽으로 이동하던 관찰사는 걱정하던 대로 상주로 들어갔다.<sup>70)</sup>

3월에 접어들 무렵, 의진 사이, 의진 내부의 갈등이 더욱 심해졌다. 봉화의병장 금석주는 별다른 설명 없이 관찰사가 공형에게 지시문[甘

62) 『소택일기』 병신 2월 26일.

63) 『적원일기』 병신 2월 29일.

64) 『碧山先生倡義始末』.

65) 『적원일기』 병신 2월 29일; 『을미의병일기』 병신 2월 30일; 『금석주일기』 병신 2월 30일; 『적원일기』 병신 2월 29일; 『금석주일기』 병신 2월 30일.

66) 『적원일기』 병신 2월 29일; 『을미의병일기』 병신 2월 30일.

67) 『소택일기』 병신 3월 머릿기사.

68) 『소택일기』 병신 3월 1일.

69) 『소택일기』 병신 2월 30일; 『적원일기』 병신 3월 4일.

70) 『일록(6)』 병신 3월 3일; 『을미의병일기』 병신 3월 7일.

結]을 보내왔다고 적었다.<sup>71)</sup> 사실상 관찰사의 지시가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셈이다. 안동의병에서는 의병분담금이 불공평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虎派가 주도하면서 고르지 않게 배정했다는 불만이었다.<sup>72)</sup> 패전 뒤에 안동부 바깥쪽을 떠돌던 안동의대장 김도화는 안동부 가까이 왔다가 다시 琴沼(임하면 금소리)로 향했다. 남쪽에서 접근하는 대구 병정에 맞서기 위한 모색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산골짜기로 난을 피하려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다.<sup>73)</sup> 청송의병은 해산 문제를 두고 크게 동요하고 있었다.<sup>74)</sup>

예천에 머물던 서상렬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鳳停寺(서후면 태장리)에서 모이자고 제안했다.<sup>75)</sup> 이를 위해 서상렬은 남한산성에서 패한 뒤 남쪽으로 이동 중이던 金河洛의 이천의병과 함께하려고 애썼다. 이천의병은 소토진의 대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남으로 떠났으나,<sup>76)</sup> 서상렬은 예천 중군, 포군 20여 명과 함께 안동 쪽으로 이동하면서 거둬 이천의병을 붙잡았다. 풍산에 이른 서상렬은 여러 의진에게 봉정사로 모일 것을 전하였다.<sup>77)</sup>

이 무렵 안동의병의 유난영이 부장으로 승진했다. 관찰사 영입을 주장하는 세력이 더 커진 것이다. 아울러 관찰사가 군사 300~400명을 이끌고 상주에서 부임해 온다는 소문도 퍼져나갔다.<sup>78)</sup>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추진된 봉정사 회의에 봉화의병은 불참을 통고해왔다.<sup>79)</sup> 서상렬을 안동의병의 軍師로 삼겠다던<sup>80)</sup> 안동의병 쪽에서도 3월 15일의 봉정사 회의에 오지 않았다. 결국 서상렬의 소토진과 이천·예천의병만 모인 셈

71) 『소택일기』 병신 3월 6일.

72) 『일록(6)』 병신 3월 9일.

73) 위와 같음.

74) 『적원일기』 병신 3월 10일.

75) 김하락, 『陣中日記』 병신 3월 11일; 『소택일기』 병신 3월 12일.

76) 『진중일기』 병신 2월 30일, 3월 9·11일.

77) 『일록(6)』 병신 3월 13일.

78) 『일록(6)』 병신 3월 14일.

79) 『금석주일기』 병신 3월 14일.

80) 『을미의병일기』 병신 3월 13일.



이었다.<sup>81)</sup>

봉정사에 있던 서상렬은 안동에서 열린 모이자는 안동의병 쪽의 연락을 받았다. 서상렬은 즉시 이를 받아들이고 이천·예천의병과 함께 행군했다.<sup>82)</sup> 만나기로 한 날짜는 3월 25일(5.7) 쯤이었던 것 같다.<sup>83)</sup> 안동의병의 지도부도 포병 400여 명을 이끌고 안동으로 들어왔고,<sup>84)</sup> 안동의병 중군 권재호가 서상렬 등을 맞았다.<sup>85)</sup> 이때 안동 회의를 위해 금소에 머물던 안동의병장 김도화가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안동의 원로인 전지평 金興洛에게도 회의에 와달라고 요청했다.<sup>86)</sup>

그런데 이때 예안의병이 다른 제안을 내놓았다. 3월 19일(5.1)에 平恩驛(영주 평은면 평은리)에서 만나자는 제안이었다. 풍기·영천·순흥·예안·봉화의병이 평은에 모이겠다는 것이었다.<sup>87)</sup> 서상렬은 안동부에서 도회를 열자고 채근하면서 안동 안기에 머물며 기다리겠다고 13 고을 의진에 통지하고, 열흘 이상 안동에 머물렀다.<sup>88)</sup>

이렇듯 안동·예안의병 쪽에서 서로 다른 제안을 하면서 안동권의 의진이 크게 분열했다. 두 모임을 두고 양쪽에서 연락이 오고, 오라마라 하는 상황이었다.<sup>89)</sup> 이렇듯 불안한 상황에 안동권에는 경군을 이끌고 충주 쪽으로 접근한 張基濂이 호좌의진 쪽에 보낸 글, 영남과 서상렬을 분

81) 『진중일기』 병신 3월 15일; 『일록』 병신 3월 17일.

82) 『진중일기』 병신 3월 15일; 조성학, 『征討日記』 병신 3월 15일.

83) 날짜에 관한 정보는 다소 엇갈린다. 3월 21일에 안동에서 모이자는 서상렬의 관문을 받은 의진이 있는가 하면(『적원일기』 병신 3월 18일), 3월 26일에 13고을 의진이 모이자는 서상렬의 이문도 있었다(『일록(6)』 병신 3월 23일). 그러나 3월 25일에 도회가 있었고, 그것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3월 25일로 날짜가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을미의병일기』 병신 3월 25일; 『일록(6)』 병신 3월 25일).

84) 『일록(6)』 병신 3월 17일; 『을미의병일기』 병신 3월 23일. 이때 김도화는 금소에 있었고, ‘上副將’이하 지도부가 안동부로 들어왔다고 한다.

85) 『정토일기』 병신 3월 15일.

86) 김도화, 『興金持平興洛』, 『척암선생별집』 권1, 21쪽 상~하.

87) 『금석주일기』 병신 3월 16일.

88) 『금석주일기』 병신 3월 17·20일; 『일록』 병신 3월 23일.

89) 『적원일기』 병신 3월 18·19일; 『금석주일기』 병신 3월 24일.

리하려는 이남규의 논리가 펴지고 있었다.<sup>90)</sup> 이남규는 상주에 관찰부를 세우고 서상렬을 체포하겠다는 입장이었다.<sup>91)</sup> 북쪽의 봉화·영천·풍기의 병 등은 풍기 쪽으로 내려온다는 경군에 관심을 쏟고 있었다.<sup>92)</sup> 소토진은 관찰사를 받아들이기로 한 진보의 실무자인 공형에게 경고했다.<sup>93)</sup>

예안의병 쪽에서 평은 회의를 제안한 배경은 곧 밝혀졌다. 이남규가 예안의병장 이중린의 아우 李中鳳에게 보낸 답장을 소토진이 입수했기 때문이다.<sup>94)</sup> 예안통문 때부터 의병에 관여했고, 예천 회맹의 중요한 상대역이었던 예안의병의 지도부가 노선을 바꾼 것으로 의심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편지에는 영남과 소토진을 분리하는 내용이 가득했다.

의진들이 모여 논의가 떠들썩한 것은 참 다행입니다. … (그러나) 안동의병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이 심하여 … (결국은) 다른 의도를 품고 우리의 집안 부류도 아닌 서상렬에게 지시를 받습니다. 공이 있으면 공은 장차 저쪽으로 돌아갈 것이요, 죄가 있으면 죄는 장차 자신에게 돌아올 것인데도 어둑하게 깨닫지 못하고 일을 함께하니 … 어찌 탄식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 서상렬이 이미 안동에 들어갔으니 반드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들의 제주는 오로지 살육하여 위세를 세울 뿐이니 가만히 안동의병의 여러 공에게 통하여 또한 마땅히 스스로 보호하는 것을 더하시고, 저들을 일을 같이하는 사람으로 믿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집사 형제분이 아니라면 어찌 감히 이런 말을 입 밖에 내겠습니까? 양해하시기를. 이 편지는 즉시 찢어 없애는 것이 어떻겠습니까?<sup>95)</sup>

90) 『소택일기』 병신 3월 18일; 『금석주일기』 병신 3월 20일.

91) 『일록(6)』 병신 3월 18일.

92) 『금석주 일기』 병신 3월 20·26일.

93) 『적원일기』 병신 3월 19일.

94) 『소택일기』 병신 3월 19일.

95) ‘隣陣之合義活發 萬萬幸幸 … 花陣不諒人太甚 … 受制於懷異圖而非我族類之 徐相烈有功則功將歸彼 有罪則罪將歸己 而曹未覺悟 與之從事 … 豈不可歎 … 徐既入花 必不寥寥 彼之技倆 惟殺戮作威而已 秘通于花陣諸公 亦宜倍加自護 勿信彼以同事人如何 … 非下執事兄弟 則何敢發此口也 庶可下諒矣 此紙卽爲扯去如何’(이남규, 「答禮安李大將弟中鳳書」, 『羅巖隨錄』 권4). 여기서 편지를 소토진의 후군이 입수했다고 적었다. 이중봉은 관찰사의 부임을 환영한다고 했다. 『소택일기』 병신 3월 19일.

이때 이미 예안의병장 이충린은 의병을 일으킨 사연을 밝힌 상소문, 즉 自明疏를 관찰사 이남규 편에 올려보낸 상태였다.<sup>96)</sup> 안동관찰사서리인 참서관 洪弼周도 경군 장교 친위대장 李謙濟에게 예안 경내에 들어가지 말고, 영천·순흥·영양 고을도 해산령을 거부하는 ‘가짜 의병’과 구분하기를 부탁했다.<sup>97)</sup> 이미 관찰부와 해당 지역의 의병 지도부가 협조하기로 했다는 말이었다. 이남규는 상소와 계시문을 통해 영남은 죄가 없으며, 서상렬은 반역자라고 주장했고, 서상렬은 여러 의진에 통지하여 관찰사를 배라고 요구했다.<sup>98)</sup>

평은 회의는 제대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논의가 정해졌다는 소문이 있었지만,<sup>99)</sup> 다시 날짜를 정해 모인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sup>100)</sup> 반면에 3월 25일에 있었던 안동 회의에는 소토진과 이천·예천·안동의병 외에 평은 회의를 추진하던 예안·풍기·영천의병 쪽도 참석한 듯하고, 청송·봉화의병 쪽에서도 유생·참모를 보냈다 한다.<sup>101)</sup> 안동의병 쪽에서는 병파의 입장을 가진 유난영 등이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sup>102)</sup>

서상렬은 이 회의에서 세 가지를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①관찰사 수용 여부, ②‘왜병’을 막는 일, ③연대를 두터이 하는 일이었다.<sup>103)</sup> 그러나 결론이 나오지는 못하였다. 이때의 분위기를 김정섭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도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풍기의병 쪽에서는 홀로 왔고, 호좌진은 돌아가겠다고 한다. (관찰사를 맞는 일은 병파와 호좌가 당을 나누었다고 할 만하다.

96) 이남규, 『答李中鳳書』, 『나암수록』 권4.

97) 이남규, 『書安東觀察使署理參書官照會, 親衛大隊長座下』, 『나암수록』 권4.

98) 『일록(6)』 병신 3월 23일.

99) 『을미의병일기』 병신 3월 20일.

100) 『금석주일기』 병신 3월 20일. 봉화의병은 평은으로 가려다가 돌아가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금석주일기』 병신 3월 24일.

101) 『일록(6)』 병신 3월 25일; 『적원일기』 병신 3월 19일); 『금석주일기』 병신 3월 26일).

102) 『일록(6)』 병신 3월 25일. 이때 김도화는 금소에서 노림(魯林: 일직면 송리)으로 옮긴 상태였다.

103) 『일록(6)』 병신 3월 23일.

동쪽 사람들[東邊: 호파]은 물리치기를 바라고, 豊面[병파]은 맞아들이기를 바란 다.) 관찰사 맞는 일을 (예안·영천이 처음에는 호파·예천 쪽을 물리치고 외면하였 다.) 호파진과 예천의병은 심하게 거부하고, 예안·영천은 곡진하게 청한다. 중론이 어지러워 끝내는 다툼이 격렬해지고 말 것이니 탄식 ... 탄식할 만하다.<sup>104)</sup>

여러 의진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상황은 더욱 어지러워졌다. 봉화 의병에서는 소토진·안동의병 쪽에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를 문의했고,<sup>105)</sup> 안동을 비롯한 여러 고을에서는 상소를 올리는 일을 이미 진행하고 있었다.<sup>106)</sup> 경군의 위협이 눈앞에 닥친 마당에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그것은 관찰사를 인정할 수 없고, 의병을 계속하여야 한다는 쪽에서 볼 때 타협이었다.<sup>107)</sup> 모임에 왔던 이천 의병도 남으로 내려가 대구를 치자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떠났다.<sup>108)</sup> 결국, 모든 의진이 제 고을로 돌아갔고, 다시 날을 잡아 모여 논의하자던 안동의병장 김도화도 비안·영해를 향해 남쪽으로 떠난다는 소문까지 떠돌았다.<sup>109)</sup> 서상렬은 이남규가 사람들을 현혹하고 인심이 굳지 못하니, 무슨 변고라도 생길 듯하다며 한탄했다.<sup>110)</sup>

104) ‘道會(事)不爲成實 豊陣獨來 湖陣將歸云 (觀使迎納事 屏虎可謂分黨 東邊欲拒 豊面欲迎) 而以觀使迎納事 (禮榮亦始屏面湖體) 湖體甚拒 禮榮曲請 衆論紛紜 末稍究竟 必將爭激乃已 可歎可歎’(『일록(6)』 병신 3월 25일). 여기서 괄호 안은 썼다가 지워 버린 부분을 대략 되살린 것이다.

105) 『금석주일기』 병신 3월 24일; 『소택일기』 병신 3월 26일.

106) 『을미의병일기』 병신 3월 23·25일.

107) 당시 상소의 논리는 안동 사람인 권상문 등이 3월에 올린 상소에서 보인다. 상소문은 갑오왜변·을미사변·단발령을 의병 명분으로 내세웠고, 조칙과 선유에 따라 해산하지 않을 수 없으나, 관찰사·수령·선유사들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고, 의병을 폭도로 여기고 경병이 노략질을 일삼으며, 명문의 후예들이 역적이 될 지경이므로 해산하지 못한다고 하였다(권상문·김숙, 「上言草」, 『나암수록』 권4). 호파의진에서도 곤경에 처했을 때 상소를 통해 위기를 넘기자는 주장이 있었다. 그때 안승우는 ‘상소를 올렸다가 해산을 명령하면 어쩔 것인가?’라고 하면서 투쟁 노선을 밀고 나갔다. 박정수, 『하사안공을미창의사실』 병신 1월 정미(11).

108) 『진중일기』 병신 3월 16일.

109) 『금석주일기』 병신 3월 26일; 『을미의병일기』 병신 3월 25일.

110) 『하사안공을미창의사실』 병신 3월 27일.

#### 4. 소토진과 안동·예안의병 관계의 파국

서상렬이 기대했던 의진 사이의 연대는 어그러졌다. 안동 도회가 있었던 다음날인 3월 26일(5.8), 서상렬은 300여 명의 포군을 이끌고 素山(풍산을 소산리)을 지나 하회를 방문했다.<sup>111)</sup> 관찰사 영입을 주장하는 병파의 근거지를 찾아 시위한 셈이다. 마침 안동 본진이 水洞(풍산을 수곡리)에 도착한다고 하여<sup>112)</sup> 안동의병장 김도화와 만나고자 했으나 거절당했다. 소토진을 이끌고 처음 안동으로 내려와 안기역에서 잠시 만난 뒤 두 달 동안 서상렬은 김도화를 직접 만날 기회가 없었다. 안동의병의 노선이 무엇인지 최고 책임자에게 직접 확인하고자 했을 서상렬은 분노했다.<sup>113)</sup> 호좌의진 대장 유인석이 안동·예안의병장에게 경고성의 통문을 보낸 것은 이즈음의 일이다.

지금 이남규가 안동에 보낸 감결과 예안의병장의 아우에게 보낸 편지를 보니 … 서상렬을 모함하려는 것입니다. … 과연 악역을 저질렀다는 평판이 정말로 서상렬에게 돌아갈지, 이 아무개에게 돌아갈지는 따질 것도 없이 알 수 있습니다. …

안동·예안 고을은 본래 추로의 고향이니 … 다른 곳과 아주 다릅니다. … 하물며 의거하던 초기에 두 고을에서 鄙陣에 청원하여 편지와 격문이 이어졌기에 서상렬에게 이를 맞아들이게 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안의병장과 안동의병의 부장 같은 사람은 때를 보아가며 생각을 바꾸고, 이익을 엿보며 의리를 등졌습니다. 이남규에게 아부하며 가만히 편지를 주고받았으니 세상에 어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겠습니까?

… 통지가 도착하는데로 생각을 바꾸고 고쳐 깨달아 유난영과 이중봉 등의 죄를 다스리고 이남규를 성토하여, 전체 영남의 취향을 온전하게 바로잡지 않는다면 … 비진은 당연히 기호·관동의 의병과 함께하여 이른 시일 안에 고개를 넘어갈 것이니 … 후회하지 않게 된다면 다행일 것입니다.<sup>114)</sup>

111) 『일록(6)』 병신 3월 26일.

112) 『을미의병일기』 병신 3월 27일; 『일록』 병신 3월 27일.

113) 『일록』 병신 3월 30일; 김도화, 「與徐召募」, 『척암별집』 권1, 24쪽 하~25쪽 상.

114) ‘今見 李南珪 發安東甘結 與其寄禮安義將之弟書 … 爲欲以此構陷徐相烈 … 果未知 惡逆之名 當歸於徐耶 歸於李耶 不待卞說而可知也 … 安禮二鄉 素稱鄒魯 … 與他迥

이때 경군이 곧 들이닥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소토진은 풍산을 지나 廣興寺(서후면 재품리)로 들어갔고, 풍기의병도 뒤따랐다.<sup>115)</sup> 안동의병의 지도부는 松夜(서후면 교리)·금계를 지나 광흥사에서 동쪽으로 6km 정도 거리에 있는 봉정사로 옮겼고, 원로들을 서상렬에게 보내 며칠 전에 있었던 실례를 사과하며 분노를 풀고자 했다. 서상렬은 군사를 이끌고 봉정사까지 와서 의성 쪽에서 올라오는 경군을 막기 위한 연대를 주장했다.<sup>116)</sup>

4월 1일(5.13), 소토진과 안동의병 사이의 갈등이 끓아터졌다. 서상렬이 안동의병 부장인 유난영을 잡아 광흥사로 끌고 갔기 때문이다.<sup>117)</sup> 서상렬은 관찰사를 받아들이자는 주장을 하면서 연대를 가로막는 중심에 하회 출신의 유난영이 있다고 보았다. 이는 영남 사회가 놀라자빠질 만한 일이었다.

한편, 안동으로 접근한 경군은 4월 2일에 안기에서 안동의병을 제압하고 약탈했다. 그 패전의 양상은 2월 난리 때보다 심했다고 한다. 이튿날 경군은 안동의병의 최고 지도부가 머물던 봉정사까지 들이닥쳤다.<sup>118)</sup> 영천·순흥의병이 달려왔으나 별 도움이 되지 못했고 소토진·풍기의병도 패했다. 안동의병 지도부는 산성(예천군 모문면 산성리)을 거쳐 북쪽으로 이동했다.<sup>119)</sup> 이날의 전투에 예안의병이 달려오지 않은 것은

---

異又況義學之初 二鄉之請援鄙陣 狀檄相續 以邀相烈 今禮安義將安東副將等人 覬時改圖 窺利叛義 阿附南珪 繆密往復 世豈有如許無狀耶 竊爲… 通到卽時 若不幡然改悟 正罪柳李等人 聲討南珪 以正全嶺趨向 …則鄙陣當檄合畿湖關東義旅 不日躋嶺… 無至追悔幸甚'(유인석, 『湖西義將通安禮文』, 『나암수록』 권4; 『소택일기』 병신 4월 18일).

115) 『일록(6)』 병신 3월 28일; 『을미의병일기』 병신 3월 28일. 이때 들어온 경군은 자료에 따라 '倭兵'과 '官兵', '경군과 대구 병사[京達兵]', '남쪽에서 온 병사[南兵]', '경병', '남쪽에서 온 도적[南賊]' 등으로 표시되었다. 대구 쪽에서 들어온 경군으로 보인다(『을미의병일기』 병신 3월 28일; 『일록(7)』 병신 4월 2·4일).

116) 『일록(6)』 병신 3월 28·30일, 4월 1일.

117) 『일록(7)』 병신 4월 3일.

118) 『일록(7)』 병신 4월 4일; 『소택일기』 병신 4월 4일; 『을미의병일기』 병신 4월 1·2일.

119) 『소택일기』 병신 4월 5일; 『일록(7)』 병신 4월 4일.

경군과 내통하였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예안의병은 와룡면까지 와서 패전의 소식을 들었다.<sup>120)</sup>

한편, 소토진·예천의병은 예천으로 이동했고, 하루 뒤인 4월 5일(5.17)에 풍기의병이 합류했다. 이튿날 새벽에는 안동을 휩쓴 경군이 通明(예천읍 통명리)으로 진출했다. 세 의진이 경군에 맞서 한낮에 이르도록 전투했다. 의병 쪽의 병력이 세배나 되었지만, 결국 이기지 못하였다.<sup>121)</sup> 서상렬이 ‘죽을 곳을 얻었다.’면서 최후를 결단할 정도의 위급한 상황이었다.<sup>122)</sup> 이때 예천에서 경군에게 피살된 이들이 40~50명, 또는 백여 명이나 되었다고 하며, 재물도 많이 약탈당하였다고 한다.<sup>123)</sup>

경군이 예천에서 분탕질한 것은 예천의병이 소토진과 공조하면서 강경 투쟁 노선을 걸었던 것 때문이라고 이해되었다. 의병 지도부가 어떤 노선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경군의 피해를 입기도 하고 비껴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다. 다음의 기록이 이를 말해준다.

경군이 영남이 이르렀는데 진주·의성·예천은 그 화를 호되게 입었고, 안동·예안·영천·순흥은 털끝만큼도 상하거나 해침이 없었으니, 관찰사와 예안·안동의병장이 속으로 받아들인 까닭임을 알겠다. 본진(예천의병)은 서 소모장이 일찍이 여러 날 머물렀기에 관찰사의 미움을 샀고, 또한 안동의병 부장을 잡아 온 것이 경군과 접전하는 까닭이다.<sup>124)</sup>

4월 7일(5.19), 결국 소토진은 예천의병의 남은 병사들과 함께 별재(문경 적성을 지나 단양 대강면 방곡리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넘어 북쪽으로 이동했다. 거의 석 달 반 만에 호좌의진의 근거지로 이동한 것이다. 안동의병 부장 유난영은 사인암을 거쳐 호좌의진의 본거지인 제천

120) 『소택일기』 병신 4월 4일; 『을미의병일기』 병신 4월 3·4일.

121) 『소택일기』 병신 4월 4·5일; 『일록(7)』 병신 4월 6일,

122) 『六義士列傳』, 「徐敬庵傳」.

123) 『을미의병일기』 병신 4월 6일; 『소택일기』 병신 4월 5일.

124) ‘京軍之到嶺南也 晉州義城醴泉酷被其禍 安禮榮順則毫無傷害 知與觀察使及禮安義將有裏許故也 本陣則徐召募曾有連有日 與觀察有忤 且拘執安東副將而來 來即接戰于京軍故也’(『소택일기』 병신 4월 머릿기사).

까지 압송되었다.<sup>125)</sup> 이후 서상렬은 古里坪(단양 대강면 괴평리)과 사인암 부근에 주둔하면서 소티(대강면 방곡리 빗재, 직티에 연결됨)·직티·伐川(단성면 별천리 벌내) 등 영남과 이어지는 길목을 수비하였다.<sup>126)</sup> 잠시 시간을 내어 제천의 대장소를 방문하기도 했다.<sup>127)</sup> 영남에도 글을 보내 병력을 더해 내려갈 계획이며, 혹시 영남에서 잘 안되면 북으로 올라와 長林(단양 대강면 장림리)에서 힘을 모아 헤쳐 나가자는 뜻을 전했다.<sup>128)</sup> 이때 유인석은 유난영을 석방하고 從事의 직임을 주었는데,<sup>129)</sup> 영남과 공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려 했던 것 같다. 안동의병 쪽에서 도움을 청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 무렵 안동에는 경군이 머물면서 여러 곳에서 의병 관련자들을 탄압하였다. 마치 단발령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의병 가담자들을 잡아들이거나 죽이고, 약탈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 영천 쪽까지 북상했던 안동의병은 다시 내려와서 와룡면 伊中(이상리)에 머물던 예안·봉화의병과 함께하려 했으나,<sup>130)</sup> 뜻대로 되지 않았다. 결국 봉화의병은 풍기 쪽으로 옮겨갔고, 예안의병은 청량산으로 이동하다가 4월 17일에는 예안에서 경군에게 패했다. 청량산까지 쫓아온 경군은 淸涼寺와 淸山堂까지 불태웠다. 특히 오산당은 이황이 글을 읽던 곳이었기에 문중에서 소중히 여기던 곳이었다. 청량산에서 분탕질을 한 경군은 돌아오는 길에 대장 이증린의 본택인 龍溪(도산면 온혜리)까지 들어와서 문짝을 부수는 등의 행패를 저질렀다. 4월 19·20일의 일이었다.<sup>131)</sup>

125) 『일록(7)』 병신 4월 7·10일; 『소택일기』 병신 4월 7일; 『하사안공을미창의사실』 병신 4월 9일. 여기서는 柳蘭馨으로 나옴.

126) 『장익환일기』 병신 4월 10일; 『일록』 병신 4월 10일.

127) 『하사안공을미창의사실』 병신 4월 10일.

128) 『일록(7)』 병신 4월 12일.

129) 『하사안공을미창의사실』 병신 4월 9일; 『소택일기』 병신 4월 21일. 김정섭은 유인석이 서상렬을 질책했고, 서상렬도 사과했다고 기록했다(『일록(7)』 병신 4월 20일).

130) 『을미의병일기』 병신 4월 8·9·10일.

131) 『일록(7)』 병신 5월 12일. 이때 이공연·박주대의 일기에는 上溪에 있는 이황의 宗宅이 불에 탔다고 기록하였다. 『을미의병일기』 병신 4월 20일; 『소택일기』 병신



안동의병도 대단한 위기를 겪고 있었다. 하회 쪽 인사들이 의병을 이탈했고, 군수 공급마저 끊어질 지경이었다. 직임을 맡겠다는 이도 없었기에 대장 김도화는 특별히 하회의 유씨 문중에 호소하고, 유인석·서상렬에게 연락하며 호좌의진 쪽의 도움을 청하는 상황이었다.<sup>132)</sup> 경군은 의병을 해산하라고 촉구했고, 참서관 홍필주와 친위대를 이끌고 온 이겸제는 안기에 머물면서 의병 해산을 요구했다.<sup>133)</sup> 안동의병은 한달 남짓 안동을 떠나 봉화·춘양 쪽으로 근거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sup>134)</sup>

이 무렵 안동 부근에는 의병 해산을 권하는 선유사가 출몰했다. 그들은 곳곳에 방문을 내걸었고<sup>135)</sup> 의병 지도부와 접촉했다. 상주 愚山(외서면 우산리)의 진주 정씨 집안에 전하는 문서 중에는 그때 정의목이 작성한 「疏草」가 남아 있다.

성지를 받은 이후 즉일로 순행에 나서야 마땅하오나, 도로가 불통하고 살육이 날로 심해져서 부득이 4월 보름께에야 교리 金近淵, 판서 張錫龍과 함께 먼저 안동 하회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여러 유씨들은 이미 왕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모두 흩어져 돌아가 문 닫고 그만두었습니다.

다음날 금계 지평 김홍락의 집에서 잠을 자고, 예안에 도착하니 의병장 이중린 이 경군을 피하여 와서 산골짜기에 숨어 있는 까닭에 가만히 그 아들을 부르고 간절히 깨우치니 비로소 소식을 듣고 나타났습니다. 인척을 만난 것이기도 하였으니 얼굴 가득 눈물 흘리며 모두 말하기를, “왕의 뜻이 이처럼 여러 영남 선비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번 해산한 후에 순검·巡捕들이 적발하여 잡아들이기 시작하면 옥석을 가리지 않고 문득 죽임을 당하리니, 사실은 화를 두려워하여 감히 해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른바 호좌진의 서상렬이 만일 다시

5월 머릿글. 장인인 이중린의 편지를 옮겨 적은 김정섭의 기록이 정확하다고 본다.

132) 김도화, 「與河回柳氏門中」, 『拓菴先生別集』 권1, 21하~23상; 「與徐召募」①, 24쪽 상~하; 「與徐召募」②, 24쪽 하~25쪽 상.

133) 『일록(7)』 병신 4월 10·14일; 홍필주, 「諭本府士民書」, 『국역경북지역의병자료』, 310~315쪽.

134) 안동의병은 沙月(임동면 사월)에 잠시 머물다가 才山으로 옮겼고, 다시 안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5월 중순이다. 『을미의병일기』 병신 4월 14·20일, 5월 15·16일.

135) 『소택일기』 병신 4월 16일; 『일록(7)』 병신 4월 18일; 『을미의병일기』 병신 4월 19일.

병사를 이끌고 설치면서 무리를 이끌고 나타나 얼마 안 되는 우리를 위협하면, 한 편은 강하고 한편은 약하여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아니하니, 마음은 원망을 하더라도 그 앞에서 복종하는 것은 형편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정을 들으니 불쌍하다고 할 만합니다.

이른바 서상렬의 선봉이 된 자, 중군이 된 자의 무리가 3~5명씩 떼를 지어 몇대로 폭력을 휘두르니 약탈하고 죽이는 일이 모두 그들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병장 무리 같은 유학자의 말로는 억제할 수 없다고들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서 예천 참모 張輪海를 만나 일의 형편을 들어가며 깨우치니 답하기를 ‘즉시 해산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다만 서상렬이 다시 오는 것이 무섭습니다.’고 했습니다.<sup>136)</sup>

정의목은 상주 출신으로 유성룡의 제자인 鄭經世의 후손이고, 예안의 병장 이중린의 처조카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의 기록은 병과 쪽의 관점, 이중린을 두둔하는 관점에서 작성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 안동 쪽의 분위기를 짐작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즉, 경군의 탄압과 서상렬의 위세가 모두 두렵다는 것이다. 이로써 그간 관찰사 수용을 둘러싼 논란이나 연대의 과정에서 소토진이 지냈던 권위의 근거와 실체를 짐작할 수 있다. 서상렬의 소토진은 유생 출신의 의병장들이 통제할 수 없는 존재였으며, 실제로 호좌의진이 다시 넘어온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sup>137)</sup> 상소문에서 정의목은 의병 초기에 앞장섰던 이들의 근거지인 海底(봉화읍 해저리)·西谷[봉화읍 유곡리 답실], 안동의병장의 마을인 龜尾(일직면 귀미리)까지 들러 두루 선무하고 ‘안동·예안의병만 해산시킬 수

136) ‘自奉聖旨 合宜即日巡行 而道路不通 殺戮方張 不得已迺於四月望間 與金校理近淵 張判書錫龍 伴行先到 安東河回地 則諸柳氏已知聖意之所在 舉皆散歸 杜門止戢 翌日宿于金溪金持平興洛家 次到禮安 則義將李中麟 避京軍之來 潛伏于山谷 故密使人招其子 懇懇曉諭 則始乃聞風出頭 或遇[知舊]姻婭 面面涕淚 皆曰 非不知上意之若是愛護嶺土 而但一散之後 巡檢巡捕摘拔捕捉 不分玉石 輒被殺害 實則畏禍 而不敢散 且所謂湖陣徐相烈 若復率兵搶攘 以衆劫寡 則強弱不同 心非面從 勢所使然云云 得其情由 則可謂哀矜 至爲所謂徐相烈先鋒 爲中軍輩 三五作隊 恣行暴動 劫掠戕害 皆出其手 然卽 爲義將輩儒談 難以抑制云云 … 路逢體叅謀張輪海 備諭事勢 則答曰 卽當解歸 而但畏徐相烈之復來云云’(정의목, 「소초」, 『고문서집성 88 -상주 진주정씨 우복종택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137) 『일록(7)』 병신 4월 16일.

있으면 걱정 없다.’고 보고하고, ‘경군에게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말고, 흩어진 의병들을 잡아 들이지 말도록 지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오랫동안 버티던 제천의 호좌의진은 4월 13일(5월 25), 장기럼이 이끄는 경군의 공세에 무너졌다.<sup>138)</sup> 서상렬은 단양으로 나가 大陣을 맞았고, 18일에는 죽령을 넘어 풍기로 옮겼다.<sup>139)</sup> 이미 풍기에는 소토진과 합류하기 위해 며칠 전부터 풍기·순흥·봉화의병이 모여들고 있었다. 서상렬은 지휘소를 풍기군의 吏廳에 정하고 단양 쪽까지 내려온 경군을 대비하여 죽령을 지켰으나, 예천에 주둔하던 경군이 밀려왔다. 소토진이 앞장서서 전투했고, 풍기의병 등 영남의 의진들이 합류했지만, 당해낼 수 없었다. 경군은 바람을 타고 불을 놓으면서 민가를 불태웠다.<sup>140)</sup> 서상렬과 일찍부터 공조했던 안동의병 부장 權玉淵이 풍기 전투를 돕고자 달려가기도 했으나 미치기도 전에 패전의 소식을 듣고 흩어졌다.<sup>141)</sup>

호좌의진은 愚錦谷(풍기읍 옥금리)으로 물러서 昆盧寺와 민배기재[옥금 쪽에서 단양 가곡면 어의곡리로 가는 고개]를 넘어 북상했다.<sup>142)</sup> 서상렬은 일찍이 활동하던 영월로 달려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고 했으나, 유인석이 머무는 장림으로 이동하다가 낙마하여 한 달 동안 쉼 수밖에 없었다.<sup>143)</sup>

안동 쪽에서는 관찰사 감결을 통해 영남은 협박을 받고 따라간 잘못이 있고, 서상렬은 대역 죄인이라고 선전하고 있었다.<sup>144)</sup> 4월 말에 이르면 풍기·예천·의성의병이 해산했고, 서상렬과 공조하던 예천의병의 장문건도 패하여 거의 해산 단계에 들어갔고, 예안의병도 향회를 거쳐 해산

138) 『하사안공을미창의사실』 병신 4월 13일.

139) 『義庵柳先生西行大略』 병신 4월 14·18일(기묘·계미).

140) 『의암유선생서행대략』 병신 4월 18일(계미); 『일록(7)』 병신 4월 16·20일; 『소택일기』 병신 4월 20일.

141) 『일록(7)』 병신 4월 27일.

142) 『일록(7)』 병신 4월 21일; 『의암유선생서행대략』 병신 4월 19일, 여기서 飛鳥寺를 통하였다는데, 비로사의 잘못이다. 옥금에 있다. 이 시기 호좌의진에 관하여는 다음을 참조할 것. 구완회①, 192~193쪽.

143) 『張忠植日記』 병신 4월 22일; 『의암유선생서행대략』 병신 5월 23일.

144) 『일록』 병신 4월 23일.

했다.<sup>145)</sup> 그런 가운데도 서상렬이 3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내려온다는 소문이 돌았고,<sup>146)</sup> 한편에서는 소토진에 협조했던 이들이 체포되고 있었다. 소토진의 총독이었던 장복규, 서기를 맡았던 李祖承, 종사였던 權在重, 장문건의 친척들이 이때 잡혀들어갔다.<sup>147)</sup>

### Ⅲ. 소토진·영남의진의 갈등 요소들

#### 1. 의사 결정 방식과 투쟁 논리의 차이

서상렬과 영남의 의진 지도자들이 갈등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먼저 투쟁의 논리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호좌의진은 유인석이라는 지도자, 柳重教가 강학하던 때부터 오랜 강회 활동 등을 통하여 공유하는 투쟁의 논리가 있었다.<sup>148)</sup> 그것은 孟子·朱子·宋時烈 등이 규정한 春秋의 가르침, 즉 ‘亂臣賊子是 아무나 죽일 수 있고, 난신적자를 칠 때는 그 패거리를 먼저 친다.’는 논리이다.<sup>149)</sup> 이러한 논리로 호좌의진은 항쟁 초기에 단양·청풍군수 등을 베면서 민심을 격동시키는 방식을 썼다. 權尙夏의 후손으로서 지역의 대표적인 명문 출신인 단양군수 權瀟을 의병에 반대한다고 베었을 정도였다.<sup>150)</sup>

호좌의진의 이런 투쟁 방식은 충격적이었던 만큼 반향도 컸다. 이른바 ‘3관찰 6군수’를 처단한 호좌의진의 논리와 실천은 단발령이 내려온 충격적 상황에서 불안에 떨던 이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호좌의진

145) 『일록(7)』 병신 4월 27일; 『을미의병일기』 병신 4월 27·29일.

146) 『을미의병일기』 병신 5월 6일.

147) 『일록(7)』 병신 6월 3일; 유인석, 「答吳士元」, 『毅菴集』 권17, 서.

148) 유종교의 강학에 관하여는 구완희④, 「성재 유종교의 강학과 문인집단의 확대」, 『역사교육논집』 44, 2010.

149) 『孟子集註』, 「滕文公 下」, ‘先治黨與’의 논리는 元대 鄭玉의 『春秋闕疑』 권1에 처음 보이는데 송시열은 이 논리를 끌어다가 尹鑄를 감싸는 尹宣舉를 공격했다.

150) 이정규, 『從義錄』.

이 명성을 얻게 된 것, 바깥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여러 의병론자들이 호좌의진을 찾아와 연합하거나 연대를 꾀하였던 것은 그 때문이다.

반면에 안동권에서 일어난 여러 의진은 그 구성과 투쟁 방략을 결정하는 방식이 달랐다. 지역을 대표하는 문중이 중심이 되었고, 병호시비로 대표되는 내부적 갈등 요인이 처음부터 내재했다. 영남의 방식은 의병의 직임 뿐 아니라 중요한 노선까지도 잘 조직된 문중의 이해관계, 지역의 이해관계가 난무하는 ‘鄉會’의 논의에 따르는 것이었다. 안동·예안은 물론이고, 예천·봉화·청송 등 기록이 남은 곳이 거의 그러하다.<sup>151)</sup> 의병 직임을 맡길 때나 물러나게 할 때도 대개는 향회를 거쳤고, 투쟁의 강도도 이를 통해 조절하고자 했다.<sup>152)</sup> 심지어는 관에서 의병 해산을 유도할 때도 문중을 설득하고, 향회를 열도록 했다.<sup>153)</sup> 이런 방식은 萬人疏 등 영남의 유림이 중요한 일을 추진할 때마다 지역과 문중별로 적절하게 그 직임을 나눠왔던 전통의 연장이기도 했다.<sup>154)</sup>

특히 영남에서는 향론을 정하기 위해 도회를 열어 의견을 조정하는 전통이 있었다. 서상렬이 주도한 태봉 회맹을 이공연은 ‘도회’라고 기록했다. 영남 각 고을의 의진이 평소 향론을 이끌어가던 명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니 의진 간의 의견을 조정하는 회의를 도회라고 본 것이다. 그간 도회에서 다뤄진 주제들은 거의 예외 없이 가문의 명예와 관련한 것이었다. 그들은 대개 남인이라는 공통점을 지녔지만, 가문 단위의 공론을 가장 중시했기에,<sup>155)</sup> 결론을 내기까지는 사적인 대결과 타협의 절차를 당연하게 여겼다. 공과 사가 기묘하게 결합한 형식이었다.

따라서 영남의 의진들은 의병을 일으키면서도 사적인 조정의 과정을

151) 『적원일기』 병신 1월 23일; 『금석주일기』 병신 2월 27일; 『소택일기』 을미 12월 12일; 『을미의병일기』 병신 1월 20일.

152) 예천의 경우, 향회를 열어 머리 깎이는 화를 면하자는 선에서 그치고 ‘爬錄’을 만드는 일 따위를 하지 말자고 했다. 『소택일기』 을미 12월 16일.

153) 『일록(7)』 병신 6월 25일.

154) 송기하, 「通屏山廬江文」, 『雲坡先生文集』 권8(정진영, 「19세기 후반 영남유림의 정치적 동향」, 『지역과역사』4, 1994, 228쪽에서 재인용).

155) 김성윤, 「안동 남인의 정치적 일상과 지역정치의 동향」, 『영남학』15, 2009, 79쪽.

당연하게 여겼다. 서상렬이 예천에 보낸 ‘關文’을 두고 朴周大가 ‘함께 의병을 하면서 관문을 보내는 예는 그 까닭을 알 수 없다.’면서 일단 불편하게 인식했던 것은 바로 그런 까닭이다.<sup>156)</sup> 보통 관문은 관찰사가 고을에 보내는 문서, 또는 고을 사이에 주고받는 공문을 말한다. 일반적인 개인, 또는 문중 사이에 주고받는 문서보다 훨씬 더 공식적인 것이었기에 박주대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물론 박주대는 ‘서상렬 소모장이 충청도와 영남에서 병력 소모를 모두 책임지는 소모장이기 때문이다[徐召募爲湖嶺都召募故也]’라 하여 상황을 받아들였다.

호좌의진, 그리고 소토진이 내세웠던 춘추의리와 근본주의적 실천 방식은 의병 봉기의 초창기에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투쟁의 현장은 의병 활동마저 끊임없이 향론에 영향받는 영남이었다. 따라서 단발령이 닥치던 위기 상황에서는 비교적 손쉽게 의견을 모을 수 있었지만, 단발령이 그치고 아관파천으로 친일 내각이 무너진 상황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더군다나 영남의 의병 지도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문중의 대표성을 지닌 인물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자랑스러운 조상이 남긴 명예를 포함한 유형·무형의 자산을 지켜내야 했다. 의병의 투쟁 노선을 두고 열렸던 송천과 안동 회의에서 관찰사를 받아들일 것인가를 두고 치열하게 논란한 것은 향론을 조정하는 과정이었던 셈이다.

이런 면에서 초창기 소토진과 연대할 때 앞장섰던 영천의병이 봉화의병 등과 함께 연대로부터 멀어졌던 것, 영남에서 소토진과 안동·예안의 병을 비롯한 의진들의 연대가 위태롭게 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기도 했다. 호좌의진 쪽에서 영남의 인물을 ‘겉이 많다, 강하지 못하다.’라고 평가한 것,<sup>157)</sup> 유난영의 구속을 보고 김정섭이 ‘영남 전체를 억압하고 업신여기고 위협한다.’라고 여긴 것은 양쪽의 비판적 관점을 보여주는 한 예라 할 만하다.<sup>158)</sup>

156) 『소택일기』 병신 2월 3일.

157) 『하사안공을미창의사실』 병신 3월 27일. 이정규, 「從義錄」, 『의암집』 권57, 부록.

158) 『일록(7)』 병신 4월 14일.

## 2. 군수 비용 마련을 둘러싼 관점 차이

의병을 위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둘러싼 갈등도 중요했다. 영남에서는 유력한 문중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을 썼다. 안동의병이 봉기 초의 패전을 딛고 재기를 모색하던 1월 중순, 예안·영천의병이 안동으로 내려오던 시기에 안동에서는 비용 마련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sup>159)</sup> 곧 서상렬의 소토진이 도착할 것이라는 소식도 있었기에 비용 마련이 시급했다. 이때 만든 ‘安東倡義所各門中分排記’에 따르면 하회의 유씨 문중을 비롯한 안동의 유력 가문들은 의병 봉기에 따른 부담을 분담했다. 예컨대 하회의 풍산 유씨 문중과 봉화 유곡의 안동 권씨 문중은 1천 냥씩, 천전의 의성 김씨 문중은 800냥, 금계의 의성 김씨, 법흥의 고성 이씨, 해저의 의성 김씨 문중은 각 500냥씩 ... 등으로 배분하여 의병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향교와 문중의 서원에도 같은 방식으로 분담시켜 총 2만 냥 남짓한 기금을 걷기로 했다.<sup>160)</sup>

이런 방식은 의진의 직임부터 각 문중의 몫을 고려했던 영남다운 방식이었다. 의병에 대한 부담도 경제력을 포함한 가문의 위상을 따르고자 했다. 이는 일찍이 만인소 운동의 과정에서 공공경비를 戶斂이나 각 문중 단위로 분배했던 것과도 통한다. 이런 것이 가능했던 것은 조선 후기 이래 중앙정계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영남의 사족 집단이 향촌사회에 쌓아올린 재지적 기반, 즉 동성 마을과 지주로서의 단단한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다.<sup>161)</sup> 또한 영남의 사족은 지역 단위의 공론을 만들 정도로<sup>162)</sup> 연대의 경험을 축적해왔기에 가능했다.

반면에 호좌의진은 문중 조직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지역에서 봉기했

159) 『일록(6)』 병신 1월 16일.

160) 『을미의병일기』 병신 1월 21일, 4월 20일. 이 때문에 서원에서 제사를 지내지 못할 정도였다. ‘분배기’는 한국학자료센터의 ‘한국고문서자료관’DB에서 볼 수 있다.

161) 정진영, 「19세기 후반 영남유림의 정치적 동향」, 『지역과역사』, 1994, 178·233쪽.

162) 설석규, 「조선시대 영남유생의 공론형성과 유도성의 만인소」, 『퇴계학과 유교문화』 44, 2009, 123쪽.

다. 이른바 명문가는 영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앙의 집권 세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고 문중간 연대의 경험도 많지 않았다. 게다가 초기 단계에서 권속을 차단한 것처럼 거대 문중과 부딪쳤고, 충주 쪽으로 나아가서 ‘故家大族’과 접촉하였으나 중앙 권력에 깊숙이 참여하고 있었던 그들의 협조를 얻을 수 없었다.<sup>163)</sup> 유인석은 이런 상황을 미리 짐작했던 듯, 일찍부터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 의병은 나라를 위한 일이므로 나라의 재물을 쓰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였다.<sup>164)</sup>

실제 봉기 상황이 되면서 유인석의 논리는 관철되었다. 봉기 초부터 ‘국가 재산’인 稅穀을 끌어다 쓰고, 의병 활동을 위해 거두는 것을 나라 위한 일이라고 정당화한 것이다.<sup>165)</sup> 실제로 9개 이상의 고을에 현지의 유력 사족이나 의진에 순종적인 지방관을 守城將으로 임명하였는데, 이들은 기존의 吏胥 조직을 활용하면서 농민을 지배하였다. 國穀을 끌어다 쓰고, 농민들에게서 노동력을 징발하고 세금을 부담시켰다. 이로써 호좌 의진은 기존의 수령을 매개로 한 지방통치체제를 무력화시키고, 군정적 지배체제를 통하여 농민을 지배할 수 있었다.<sup>166)</sup>

물론, 항쟁이 길어지면서 호좌의진의 수취에 대한 원망도 많았다. 이때 중군장이었던 安承禹는 ‘군량을 공급하다가 굶어 죽는다면 그것 역시 義에 죽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sup>167)</sup> 호좌의진을 제압하기 위해 경군을 이끌고 제천으로 간 장기림이 ‘公貨’까지 빼앗아가는 의병이 어디 있느냐고 따졌을 때,<sup>168)</sup> 유인석이 맞선 논리는 간단했다.

공화를 빼앗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왜놈의 군수품과 군량이 되어 다시는 국가

163) 구완회⑤, 「을미의병기 호좌의진과 충주 지역 활동」, 『역사교육논집』58, 2016, 295~299쪽.

164) 이기진, 「舉義終始錄」, 『明窩集』 상, 58쪽 상.

165) 유인석, 「回照文」, 『호서의병사적』, 269쪽.

166) 구완회⑥, 「제천을미의병의 경제적 기반과 수성장체제」, 『인문사회과학연구』2, 1995.

167) 『하사안공을미창의사실』 병신 2월 19일, 3월 7일.

168) 장기림, 「告示」, 『호서의병사적』, 290쪽.



의 물건이 될 수 없는 것이요, 이것을 빼앗아 도둑을 치는 밀천으로 삼았는데 무엇  
이 의에 해롭단 말인가.<sup>169)</sup>

호좌의진의 논리는 영남의 관행과 현실에 부딪혔다. 여러 의진이 연대하는 가운데 경비가 만만치 않았다. 안동 도회를 앞두고 봉정사에 머물던 소토진과 이천·예천의병이 안동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경비를 마련할 대책이 없어 난감했다는 김정섭의 기록이 대표적이다.<sup>170)</sup> 환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社倉米’를 끌어다 쓰는 문제가 자주 논의되었던 것은 그 때문이다. 물론 안동의병에서도 일찍이 사창미를 징발하려 한 적이 있었지만, 실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sup>171)</sup>

그러나 소토진이 많이 머물렀던 예천의 분위기는 안동과 달랐다. 세곡을 끌어다 썼다는 기록은 없지만, 서상렬이 명봉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워가던 2월 하순경에 이미 사창미 8백 석을 의병의 군량미로 쓰기로 했다.<sup>172)</sup> 얼마 후 호포전으로 대신하기로 했지만, 의병소에서는 다시 사창미를 수납하라고 명령했다.<sup>173)</sup> 봉화의병에서도 사창미를 동원했고 군수의 추인을 받았다.<sup>174)</sup> 후에 장복규는 문초받는 과정에 ‘나라에서 관리하는 곡식을 함부로 먹었다[擅食國穀]’는 비난을 받은 서상렬과 함께한 죄를 추궁 받았는데,<sup>175)</sup> 아마 사창미를 끌어다 쓴 것을 일컫는 듯하다.

의병의 전개과정에서 전투 부대가 직접 ‘걷는 일’에 나서는 경우도 생겼다. 공식적으로 요호를 가려뽑아 거두는 경우도 있었지만,<sup>176)</sup> 포군들

169) ‘攘奪之公貨 乃倭賊之資糧 非復我國之公貨 則取之 而爲討賊之資 何害於義乎’(유인석, 「회조문」, 『호서의병사적』, 269~270쪽).

170) 『일록(6)』 병신 3월 17일.

171) 권제녕, 『의중일기』 병신 1월 21일. 4월 초에서야 사창미를 동원하라는 전령이 있었는데, 서상렬이 봉정사에 머물던 김도화에게 연대투쟁을 요구하던 때였다. 『일록(7)』 병신 4월 1일.

172) 『소택일기』 병신 2월 25일.

173) 『소택일기』 병신 2월 30일, 3월 10일.

174) 『금석주일기』 병신 3월 5일.

175) 장복규, 「丙申五月獄中日記」, 『四而齋文集』 권1, 13쪽 하.

176) 『일록(6)』 병신 2월 4일; 『금석주일기』 병신 2월 25일; 『소택일기』 병신 3월 4일.

이 직접 직접 마을에 나아가 물자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 경우가 가장 큰 논란이 되었는데, 토색질과 다름없다고 여겨졌다. 소토진에 적극 호응했던 것으로 보이는 안동의 소모관 李周弼, 이천의병에 관한 여러 부정적인 기록들이 이를 시사한다. 이들의 개별적 수취 행위는 대개 향론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金山의병의 지도자인 呂中龍은 의병 봉기를 준비하던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만일 남에게 취하여 먹고 쓴다면 토색질한다는 지목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니 누가 온 힘을 다하여 향응하기를 달가워하겠는가? 또한 나라의 재산을 조치하여 사용하라는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의리상 털끝만큼도 범할 수 없을 것이다.<sup>177)</sup>

이런 논리는 호좌의진의 지도부에서 볼 때 낯선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예천에 있으면서 소토진을 가까이서 지켜본 朴周大의 평가는 설득력이 있다. 그는 서상렬이 소토진을 이끌고 부포의 남 진사 댁에 들러 며칠씩 뒷바라지를 시키고도, 떠날 때 5백 냥이나 걷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sup>178)</sup> 그는 서상렬을 두고 ‘대의를 위해 殉死하겠다고 고집하니 원망할 수는 없지만, 관리를 걸핏하면 죽이고 군수금을 강제로 거두며 인정머리가 없으니 좋은 장수라고 할 수 없다.’라고 평가했다.<sup>179)</sup>

### 3. 영남 내부의 갈등 요소와 소토진

영남에서 소토진이 영남 내부의 갈등적 요소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던 점도 주목할 만하다. 먼저 안동을 비롯한 영남 지역은 자존감 높은 남인들의 근거지였다. 그러나 오랜 노론 정권을 거치면서 노론 세력이 성장하고 있었고, 그로 인한 갈등이 만만치 않았다. 金尙憲 서원의 건립과

---

177) ‘若欲取於人而食之用之 則未免討索之名矣 其孰肯竭力嚮應之乎 又未蒙國財之措用 義不敢一毫犯之矣’(여중룡, 『甲午丙申日記』, 『국역 경북지역 의병자료』, 안동독립운동기념관, 237쪽).

178) 『소택일기』 병신 2월 28일.

179) 『소택일기』 병신 3월 머릿기사.

획과 과정에서 보듯이 안동권의 노론 세력은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이미 두드러진 현상이었다.<sup>180)</sup> 게다가 19세기에 와서 시작한 병호시비는 영남 사회를 더 복잡한 갈등으로 내몰았다. 칠중 때 金洙根 서원의 건립과 院任 문제를 두고 나타난 주요 문중 간의 絶緣 소동은 노론 세력의 성장이 병호시비와 뒤엎히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다.<sup>181)</sup>

이런 갈등 요소는 단발령과 의병 봉기라는 긴급한 상황에서 겹으로 보기에는 잠시 가라앉는 듯했다. 그러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야 하는 의병 항쟁을 어느 쪽에서 주도하는가? 외부 세력과 연대할 것인가? 외부 세력에게 주도권을 내어주는 것이 옳은가? 연대할 때 어느 쪽이 이를 주도하는가 하는 문제는 민감한 문제였다. 영남의 자존심이 관련된 문제일 뿐 아니라 문중 사이의 권력관계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연대를 어렵게 하는 현실적 걸림돌이었다.

이런 점에서 호좌의진과 연대하던 처음부터 활동한 권옥연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봉화의 유곡 출신으로 문과에 급제한 뒤 正言을 역임한 당당한 배경을 지녔던 인물이다. 유곡은 병호시비의 과정에 定齋學派의 인물들, 바꿔 말하면 金誠一의 학문을 계승한 호파 계열이 중요한 근거지이기도 하다. 따라서 초기에 호좌의진과 연대하는 과정에 호파 출신이 앞장선 셈이다. 천성의병에 가담했고 안동의병에 들어가 핵심을 차지하게 되는 해저 출신의 金夏林·권재호 등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들은 대체로 서상렬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2월 말에 서상렬이 안동으로 나아갔을 때 그를 맞은 것도 권옥연이고, 3월 15일에 안동으로 들어갔을 때는 권재호가 맞았다.<sup>182)</sup> 그런데 안동의병 초창기부터 권재호와 유난영이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었다.<sup>183)</sup> 서상렬이 유난영을 봉정사에서 구금하다가 제천 쪽으로 끌

180) 정진영, 「18세기 영남 노론의 존재형태」, 『한국사연구』171, 2015, 241쪽.

181) 김성윤, 앞의 논문, 89쪽; 권오영, 「한말 위정척사운동의 사상적 맥락」, 『한국근현대사연구』10, 1999.

182) 『소택일기』 병신 2월 27일; 『정토일기』 병신 3월 15일.

183) 『의중일기』 병신 1월 22일.

고 간 뒤, 김정섭은 권옥연에 대한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듣자하니 권옥연이 본진(안동의병)의 부장이 되었다고 한다. 처음에 호좌진을 불러들인 자가 누구인가? 일전에 외종조(유난영)가 잡혀가던 날 중간에서 거들었던 자다. 한 고을에서 손가락질을 받아 쫓겨나고 그 신임을 빼앗겼는데도 멋대로 行公하니, 어찌 참을 것인가. 인심이 극도로 험악하다 할 만하다.<sup>184)</sup>

권옥연이 소토진 바깥에서 서상렬을 도왔던 영남의 주류에 속하는 인물이라면, 소토진에 가담한 사람 가운데는 비주류라고 할 만한 이들이 있었다. 소토진은 영남으로 내려오는 과정에 영천·풍기 등을 거치면서 영남 쪽의 인사들을 받아들였는데, 그들 중 대표적인 인물이 장복규다. 그는 인동 장씨 동성 마을인 花溪(영주 장수면 화기리) 사람으로 70이 넘은, 소토진 내 최고 연장자였다. 영천에서 의진이 처음 출범할 때 배제되었다가 소토진에 가담했는데, 나중에 체포되어 ‘영남의 사람으로 영남의 의병을 하지 않고 서 아무개를 쫓은 것’을 문초당하고, 안동 濟南樓 아래에서 처형되었다.<sup>185)</sup> 장복규에 관하여 張復憲·金永胄가 남긴 다음의 기록을 참고할 만하다.

일찍이 본군에서 창의할 때 공을 추천하여 앞장섰는데 이윽고 당파를 짓는 풍속[黨習]이 그치지 않아 연소자에게 모욕을 당하였으니, 그날로 집에 돌아왔다. 종중 분을 이기지 못하여 말하기를, ‘죽을 만하면 죽는 것, 그것이 대장부의 氣節이다. 그러나 만일 「아무개가 제대로 죽었다.」라고 한다면 비록 들판에 뼈를 드러내고 죽는다 해도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얼마 가지 않아 서상렬이 고개를 넘어와서 소모하면서 특별히 유생을 보내어 공이 나설 것을 여러 차례 간청하였으니, 공이 그의 정성스러운 마음과 충성심과 의리를 보고는 병을 무릅쓰고 모임에 나갔다. … 아, 공은 비록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였지만 안동부는 끝끝내 黨禍

184) ‘聞權玉淵 爲本陣副將云 當初請來湖陣者 誰也 (而)日前外從祖(之)執捉之日 中間慙患者 一鄉所指黜 而奪其信 肆然行公 是其可忍耶 人心極可險惡’(『일록(7)』 병신 4월 10일.

185) 장복규, 「丙申五月獄中日記」, 『四而齋文集』 권1, 13쪽 상~하; 『일록(7)』 병신 5월 14일.

를 벗어나지 못함이 어찌 이리 심한가! 처음에 향리에서 배척하던 자는 누구인가? 끝내 병정을 끌어들이 죽인 자는 누구인가? 지극히 분한 울분을 펴 날은 기약이 없으나 가만히 기록하여 먼 훗날을 기다리노라.<sup>186)</sup>

사람들이 말하기를, ‘서상렬이 영남에서 협조를 얻지 못하고 낭천에서 죽은 것은 사색당쟁의 남은 풍습이 그렇게 몰아간 것이다. 공이 고향에서 죽지 못하고 안동에서 죽었으니 두 당파의 목은 감정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공을 그렇게 만든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요, 처음에 서상렬을 내몰았던 자일 뿐이다’라고 한다.<sup>187)</sup>

장복규는 왜 영천의병이 출범하는 과정에 배제되었을까? 그는 호절풍의 인물로서 젊어서부터 오랫동안 서울에 드나들면서 대원군의 문하에 출입했다. 당대의 ‘卿宰’들과 적극적으로 사귀면서 오랫동안 떨치지 못한 가문을 일으켜 보려고 노력했고, 민씨 척족세력이 득세하던 시기에 5년간의 유배 생활까지 겪었다.<sup>188)</sup> 이러한 그의 처신은 영남의 주류 사회에서는 용납되기 어려웠던 듯하다. 朴容斌은 제문에서 ‘儒雅함’을 숭상하는 영남 사람들 속에서 ‘氣義’로써 알려진 장복규는 용납될 수 없었고, 영남에서 용납되지 못했던 것이 빌미가 되어 죽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것이 영천의병의 출범기에 배제되었던 이유였고, 목숨을 잃게 된 배경이었다고 본 것이다.<sup>189)</sup>

게다가 그는 충청도에서 내려온 호좌의진의 소토진에 합류했다. 호좌

186) ‘曾於本郡倡義之時 推公爲前列 旣而黨習未已 爲年少者所侮辱 卽日還家 往往不勝憤激曰 當死而死 是大丈夫之氣節 而如曰 某也善其死云爾 則雖暴骨原野 非所恤也 未幾 徐相烈踰嶺召募 別遣儒生 累懇公起 公見其赤心忠義 雖強病而赴會 然其不成 則料之熟矣 嗚呼 公雖以死自許 而花府畢命 竟不免於黨禍 何其甚哉 始擠斥於鄉者 何人 終而構殺於兵者 又何人哉 至恨彌鬱伸暴無期 竊記之以俟百世’(장복현, 『附續錄』, 『사이재문집』 권1, 14쪽 하~16쪽 하).

187) ‘人曰 徐之不協於嶺 而死之於狼川 四黨餘習 有以驅之 公之不得死於鄉 而死於安東 二黨宿憾 有以致之 而致公者 非他人 卽其初驅徐者耳’(김영주, 『附後識』, 『사이재문집』 권1, 16쪽 하~17쪽 하).

188) 권복규, 『還山述懷』, 『사이재문집』 권1, 9쪽 하; 권상규, 『四而齋文集序』, 『사이재문집』; 장복일, 「제문」, 『사이재문집』 권2, 30쪽 하~31쪽 상; 장표문, 「제문」, 『사이재문집』 권2, 31쪽 상~하.

189) 박용빈, 「제문」, 『사이재문집』 권2, 15쪽 상~16쪽 하.

의진을 주도했던 선비들은 화서학파의 학통 속에서 성장한 인물들이었고, 그들은 李恒老 이래 스승들의 가르침을 좇아 노론의 상징인 宋時烈을 尊周大義를 실천한 스승으로 떠받들었다. 그것은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남인의 전통을 이어온 영남의 주류 쪽에서 볼 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다. 특히 안동관찰사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하는 과정에서 서상렬의 강경론에 맞섰던 이들에게 영남 사람 장복규는 곱게 보일 리가 없었다. 실제로 그의 사후에 바쳐진 輓詞와 제문 중에는 權世淵·권옥연 등 호좌의진에 우호적이었고 연대에 적극적이었던 인물, 소토진 쪽의 서상렬·金東觀·李奎顯 등의 이름이 보인다.<sup>190)</sup> 반면에 함께 유배 생활을 했고, 예안의병장이 된 이증린의 제문이 보이지 않는다.<sup>191)</sup> 영천의병장 金禹昌의 문집인 『起菴集』에도 장복규에 관한 언급이 없다.

이는 당시의 의병 활동이 당파성을 온전히 극복하지 못했던 것을 말한다. 서상렬이 영남에서 협조를 얻지 못한 것, 장복규가 영천에서 배제되고 결국 안동에서 죽은 것을 당파성 때문이라고 여겼던 것은 그 때문이다. 서상렬이 노론 계열의 학통에서 성장한 인물이었던 것,<sup>192)</sup> 병호시비와 관련한 문중 사이의 갈등, 기타 지역 사회 내부의 갈등은 서상렬과 영남 의병의 연대를 제약하는 요소였다.

또 한 사람, 소토진의 종사로 활약한 권재중도 주목할 만하다. 서상렬이 안동에서 활동할 때 雲安(운안동)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향리 출신이었다. 뒷날 서상렬이 전사한 낭천 전투 때도 함께했는데, 나중에 안동에서 잡혀 처형되었다고 한다.<sup>193)</sup> 안동에서 처음 의병을 일으킬 때 향리들이 앞장섰고, 사족들을 압박했던 면이 있었다. 김정섭의 기록에 그 부분이 분명히 나타난다.

190) 김동관은 영월 출신의 의병론자로서 소토진에서 중군·전군장을 맡았고, 이규현은 장담에 출입하면서 의병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191) 장복규는 이증린·李壽岳 등과 함께 길주·명천에 유배생활을 함께했다.

192) 서상렬이 화서학파에 몸담게 되는 과정은 다음의 글을 참고할 것. 구완희②, 43~45쪽.

193) 권재중, 「(서상렬)제문」, 『敬庵集』 권2; 유인석, 「答吳士元」, 『毅菴集』 권17, 서.

듣자하니 안동부내의 아전·무뢰배들이 관찰사를 해치고 병장기를 빼앗았다면 서 큰소리치기를, “향회에 모인 사람들이 만일 의병을 일으키지 않고 모임을 그만 둔다면 부내(사람들)만 그 재앙을 입을 것이다.”라고 하면서(회의를 마치고) 홀 어져 돌아갈 때 사방에 숨어 있다가 노소를 막론하고 두들겨 패겠다고 한다. 전하는 해괴한 소리가 비록 정확한지는 알 수 없으나 인심은 두려워할 만하다.<sup>194)</sup>

돌아오는 길에 제남루 위를 보니 아전들이 붙인 방이 있었다. 비록 창의를 명분으로 삼기는 하였으나 향유·향반들을 논박하는 내용이 많았다. 아침이 지난 후에 제남루 아래에서 모임이 열렸다. 하상의 노성한 이들은 먼저 김 지평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충분히 토론한 결과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다. 전해 들으니 하나는 옛 복제를 지키는 향약장을 선출하여 각면과 각리를 잘 다독거림으로써 머리를 깎지 않을 계획을 세웠으며, 아전들과 시정잡배들의 공갈이 몹시 두려운지라 부득이 의병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어찌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고 한쪽의 지휘를 받아들이기만 하며, 또한 어찌 무엇이 미심쩍고 두려워서 끝내 아전들에게 강제를 당하고? 나도 모르게 실소가 나왔다.<sup>195)</sup>

이처럼 소토진이 영남에 와서 결합했던 이들은 영남 내의 특정한 사회 세력의 한 부분이었다. 주류 집단 안에서 갈등하는 한쪽 당사자였고, 심화하는 계층 갈등 속에 있는 이들이었다. 따라서 강력한 위세를 행사하는 소토진이 이들과 결합하는 것은 영남 사회에서 긴장을 불러왔다. 특히 영남의 의진을 명문가의 후예들이 주도하였던 만큼, 소토진에 결합한 이들 중에는 비주류 쪽 인물들이 많았을 것이다. 이들이 참여한 소토진이 영남에서 연대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은 영남의 주류 세력에게 편치 않은 일이었다. 그것이 서상렬이 추진한 연대의 걸림돌이었다.<sup>196)</sup>

194) ‘聞府內吏胥(無賴)輩 欲害觀察 將奪軍器 而又揚言曰 鄉人若不爲義兵而罷會 則府內獨受其禍矣 散去之際 四面埋伏 無論老少毆打 罔測之傳言 雖未的知 人心甚可畏也’(김정섭, 『향회시일기』 을미 12월 5일).

195) ‘歸路見濟南樓 有吏輩揭榜 雖以倡義爲名 多有論駁鄉(班者)儒處 朝後 開坐於濟南樓下 而河上老成 先去金持平所 爛商議(稟)到者 未知何事 轉聞一則出守舊約長 敦束各面各里 以爲不削之糾纏 而盖吏胥市井之恐喝甚怖 故不得已爲義旅云云 何不自斷 唯聽一邊指揮 又何疑懼 竟爲吏輩所制 不覺笑歎’(김정섭, 『향회시일기』 을미 12월 6일).

196) 서상렬이 영남에서 주도권을 행사한 것을 우기정은 ‘公則踰嶺 嶺之七郡 一

#### IV. 맺음말

태봉 전투(2.16) 뒤에 예천 회맹(2.10)의 결과로 모여들었던 의진들은 흩어졌다. 패전한 까닭을 두고 갈등이 빚어졌고, 일본군은 안동권 의병의 중심인 안동을 불태웠다(2.20). 이후 호좌소토진을 이끌었던 서상렬은 예천의병과 함께하며 다시 싸울 것을 줄곧 주장했다. 그 기세에 의병 해산을 위해 내려온 안동관찰사 이남규는 부임조차 할 수 없었다.

이남규는 安東圈 의병과 서상렬을 분리하고자 했다. 안동·예안의병 지도부를 설득하기 위해 하회 마을까지 들어와 설득 작업을 했다. 영남 의병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서상렬을 반역자로 단정했다. 안동의 屏派와 예안의병 지도부가 관찰사의 논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안동의병 내부와 의진간 갈등이 더해갔다. 이남규가 상주 쪽으로 물러나자, 일본군이 또 올 것이라는 위기감도 높아졌다. 서상렬은 관찰사를 배척하고 의병을 계속하자는 주장을 관찰하기 위해 예천 義陣會議를 제안했다. 이후 송천 회의(2.30), 봉정사 회의(3.15), 평은 회의(3.19), 안동 회의(3.25) 등이 이어졌다.

서상렬이 제안한 예천·봉정사 회의는 영남 의진의 별다른 호응을 받지 못했다. 대신 안동의병이 제안한 송천·안동 회의에서 실질적인 토론이 이뤄졌다. 회의에서 서상렬은 강경론을 주장했지만 병파와 예안의병 쪽은 타협안으로 맞섰다. 예안의병은 안동의병을 견제하려고 안동 회의와 거의 동시에 평은 회의를 따로 제안할 정도로 영남 의진들도 갈등했다.

결국, 서상렬은 병파 쪽 인물로서 안동의병의 2인자였던 유난영을 구금했다(4.1). 서상렬은 관찰사와 타협하자는 병파와 예안의병 지도부가 의병을 배신했다고 여겼다. 때마침 京軍이 안동으로 들어와 의병을 패주시키고 장기 주둔 태세에 들어갔다. 서상렬의 소토진은 예천·풍기의병과 함께 예천으로 이동하여 경군과 격전 끝에 패했다(4.6 예천 전투).

---

號響應 曰權曰金 推我主盟 糾合四方 數千其精 南北連結 庶幾奏功'이라고 요약했다. 우기정, 「(서상렬)제문」, 『경암집』권2.



이후 소토진은 북상하여 단양 남쪽에 주둔했다. 곤경에 처한 안동의병이 다시 연대할 것을 요청했고, 제천까지 끌려갔던 유난영이 풀려나면서 연대 회복의 조짐이 일었다. 그러나 호좌의진은 경군에게 근거지인 체천을 빼앗겼고(4.13), 남으로 내려와 풍기·봉화·순흥의병과 함께 예천 쪽에서 올라온 경군에 맞섰으나 패하였다(4.18 풍기 전투). 이후 서상렬은 호좌의진의 본진과 함께 북상하면서 영남 의진과 다시 합칠 수 없었다.

서상렬의 소토진이 끝내 영남의 의진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이유는 대략 세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투쟁 논리와 지도 방식이 달랐다. 소토진은 호좌의진이 내세웠던 논리, 즉 ‘난신적자는 누구나 칠 수 있고, 난신적자를 칠 때는 그 패거리부터 친다.’라는 단순 명쾌한 논리를 밀고 나갔다. 초기에 명문가의 후손인 단양군수를 의병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벨 정도의 직선적 논리였다. 이는 의진의 구성과 투쟁 방략까지도 문중간 타협의 결과인 鄉論에 따르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영남과 크게 달랐다. 관찰사를 받아들일 것인가를 둘러싼 논란은 그 때문이다.

다음으로, 군수 비용을 마련하는 논리가 서로 달랐다. 호좌의진은 의병은 나라를 위한 일이므로 세곡이나 국곡을 쓸 수 있고, 농민에게서 거두는 것도 정당하다고 보았다. 반면에 영남 쪽은 향문을 거쳐 유력한 문중이 비용을 분담하는 형식으로 출발했다. 중앙 권력에서 오랫동안 소외되었던 영남의 사족들은 만인소 등을 추진하면서 비용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문중간 연대를 발전시켜 온 경험이 있었다. 반면에 호좌의진의 활동 무대였던 충청도 쪽은 문중간 연대의 경험도 적었고, 집권 세력의 일부로서 국가 권력에 깊숙하게 참여하였으므로 의병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호좌의진은 봉기 초부터 국가 곡식도 쓸 수 있다는 주장을 했던 셈이다. 이 때문에 영남에서 활동한 서상렬은 국가 곡식을 함부로 썼다는 비난, 전투부대를 이끌고 나가서 직접 물자를 징발한다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셋째로 소토진은 영남 내부의 갈등 요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영남은 자부심 강한 남인의 근거지이지만, 노론 세력의 성장으로 인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었고, 남인 내부에서도 屏虎는非 같은 갈등이 있었

다. 의병 항쟁을 어느 쪽이 주도할 것인가? 외부 세력인 소토진과 연대할 것인가? 그들에게 주도권을 내줄 수 있는가? 연대할 때 영남의 어느 쪽이 주도권을 쥌 것인가 등을 둘러싼 긴장이 있었다. 이런 점에서 소토진과의 연대를 주도한 인물들이 虎派 쪽이었다는 것, 영남 쪽 비주류 세력들, 예컨대 영천(榮川)의병에서 배제된 장복규, 안동의 향리 출신인 권재중 등이 활동하는 소토진은 명문가의 후예인 영남 쪽 의진 지도자들에게 불편한 부분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서상렬이 바라던 소토진과 영남 의진들의 연대 회복은 좌절되었다. 소토진이 영남을 벗어난 뒤, 경군이 주둔한 안동권의 의병 세력은 급격히 쇠퇴했다. 4월 중순부터는 선유사들이 나서서 의병 지도부를 설득했고, 경군은 의병론자들을 탄압했다. 더러 서상렬이 다시 내려온다는 기대반, 걱정 반의 소문이 돌았지만, 더 이상 강경 투쟁론자들이 기댈 데가 없었다. 이후 안동의병을 비롯한 영남 의진들은 鄉會를 거치면서 차츰 해산의 길로 나아갔다. 이런 면에서 소토진이 안동권 의병의 부침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변수였던 점을 알 수 있다.

※ 이 논문은 2020년 11월 11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0년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12월 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疏草」(정의목), 『甲午丙申日記』(여중룡), 『敬庵集』(서상렬), 『高宗實錄』, 『국역경북지역의병자료』(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2012), 『琴錫柱日記』, 『明窩集』(이기진), 『不自棄文』(김병하), 『四而齋文集』(장복규), 『小宅日記』(박주대), 『修堂集』(이남규), 『承政院日記』, 『雲坡先生文集』(송기하), 『乙未義兵日記』(이규연), 『毅菴柳先生西行大略』, 『毅庵集』(유인석), 『義中日記』(권제녕), 『日錄』(김정섭), 『日錄』6(김정섭), 『日錄』7(김정섭), 『張益煥日記』, 『張忠植日記』, 『赤猿日記』(심성지), 『征討日記』(조성학), 『從義錄』(이정규), 『陣中日記』(김하락), 『倡義事實記』(박정수 외), 『拓菴先生別集』(김도화), 『下沙安公乙未倡義事實』(박정수), 『鄉會時日記』(김정섭)

구완회, 『한말의 제천의병』, 집문당, 1997.

권영배, 『안동 지역 의병장 열전』, 지식산업사, 2012.

안동대 안동문화연구소, 『경북독립운동사 I』, 경상북도, 2012.

이구영 편, 『(개정판)湖西義兵事蹟』, 수서원, 1994.

구완회, 「한말의 의병장 경암(敬庵) 서상렬의 생애」, 『지역문화연구』12, 세명대 지역문화연구소, 2013.

구완회, 「을미의병기 호좌의진과 영남 의진의 연대와 태봉 전투」, 『국학연구』24, 2014.

구완회, 「성재 유중교의 강학과 문인집단의 확대」, 『역사교육논집』44, 2010.

구완회, 「을미의병기 호좌의진과 충주 지역 활동」, 『역사교육논집』58, 2016.

구완회, 「제천을미의병의 경제적 기반과 수성장체제」, 『인문사회과학연구』2, 세명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95.

권대웅, 「을미의병기 경북 북부지역의 예천회맹」, 『민족문화논총』14, 1993.

권대웅, 「을미의병기 안동유림의 의병투쟁」, 『대동문화연구』36, 2000.

권대웅, 「을미의병기 호좌의진의 영남지방 활동」, 『지역문화연구』7, 2008.

권오영, 「한말 위정척사운동의 사상적 맥락」, 『한국근현대사연구』10, 1999.

권오영, 「이남규(1855~1907)의 학맥과 유학사상」, 『조선시대사학보』44, 2008.

김상기, 「1895~1896년 안동의병의 사상적 연원과 항일투쟁」, 『사학지』31, 1998.

김성윤, 「안동 남인의 정치적 일상과 지역정치의 동향」, 『영남학』15, 2009.

- 김희곤, 「서산 김홍락(1827~1899)의 의병항쟁」, 『한국근현대사연구』15, 2000.
- 김희곤, 「예안 선성의병과 온혜마을 인물의 역할」, 『안동사학』11, 안동대, 2007.
- 설석규, 「조선시대 영남유생의 공론형성과 유도성의 만인소」, 『퇴계학과 유교문화』44, 2009.
- 이동신, 「예안지역의 선성의병(1895~1896) 연구」, 『안동사학』8, 안동대, 2003.
- 정진영, 「18세기 영남 노론의 존재형태」, 『한국사연구』171, 2015.
- 정진영, 「19세기 후반 영남유림의 정치적 동향」, 『지역과역사』4, 1994.
- 조동걸, 『한국독립운동사총설』(우사 조동걸 저술전집 3), 역사공간, 2010.

Abstract

## Seo Sang-yeol's Righteous Army Activities in Yeongnam Province during Eulmi Righteous Army period

Ku, Wan-hoe

Seo Sang-yeol(徐相烈) was a leader of 'Hojwaeujin(湖左義陣)' in the uprising of righteous armies against the ordinance prohibiting topknots. He had led the righteous army movement with his troops in Yeongnam (嶺南) province as a chief military officer. He made an alliance with righteous armies from seven counties and led the active struggle against Japan.

Men from the noble class took lead the righteous army in Yeongnam province and they reconciled their ideas through the discussion in the meeting. It was, therefore, very hard for Seo Sang-yeol to carry out his convictions of invincible struggles.

The governor of Yeongnam province tried to break off the alliance by alienating Seo Sang-yeol from the public opinions of Yeongnam province to disband the righteous army.

Seo Sang-yeol made effort to hold the meeting and gather the opinions of each righteous army several times, but failed to restore the alliance with the appearance of a different meeting. He criticized the leaders of Andong and Yeonan righteous armies directly and their alliance was broken. Eventually righteous army activities in Yeongnam

province which kept alive by bowing to the Seo Sang-yeol's power, declined rapidly.

**keywords :**

Righteous Army(義兵), Hojwaeujin(湖左義陣), Sotojin(召討陣),  
Seo Sang-yeol(徐相烈), Yi Nam-gyu(李南奎), Yeoan righteous  
army(禮安義兵), Andong righteous army(安東義兵)